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3569

2013년 2월
석사학위논문

經絡氣化와 五運六氣의 適用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정 인 순

2013년 2월
석사학위논문

經絡氣化와 五運六氣의 適用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정 인 순

經絡氣化와 五運六氣의 適用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and the Five Circuits & Six Qi's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정 인 순

經絡氣化와 五運六氣의 適用에 관한 研究

지 도 교 수 : 임 경 준

이 논문을 졸업 석사학위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정 인 순

정인순의 대체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박 상 학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문 경 래 인

위원 조선 대학교 교수 임 경 준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目 次

표목차 iii
ABSTRACT..... iv

第一章 緖論 1

第二章 本論 4

第一節 經絡體系의 運行法則..... 4
1. 水昇火降 4
2. 經絡의 流注 7

第二節 經絡의 構成要素 8
1. 陰陽 五行 8
가. 陰陽
나. 五行
2. 三陰 三陽 16
가. 五運과 六氣
나. 三陰三陽
(1) 厥陰風木
(2) 少陰君火
(3) 太陰濕土
(4) 少陽相火
(5) 陽明燥金
(6) 太陽寒水

第三節 十二經脈 名稱에 대한 理解 24
1. 正名思想 24

2. 經脈의 構成 25
가. 部位
나. 氣運
다. 臟腑

第四節 經絡氣化의 原理..... 31
1. 經絡의 機能 31
가. 陰陽調和
나. 病邪에 對抗하고 그 症候를 反映
다. 治療上 傳導作用
2. 經絡氣化 32
가. 標本中氣
나. 標本同氣
다. 標本異氣
라. 濕從燥火. 風從火化
3. 經絡氣化와 病症 37

第五節 經絡氣化와 臨床的 運用 方法 41
1. 經絡의 運用原理 41
2. 陰陽調節에 따른 運用 42
3. 五運六氣 特性의 活用 43
4. 五輸穴 44
5. 關係理論에 따른 配經과 配穴 47
가. 開闔樞理論에 따른 相通經絡의 活用
나. 天干相合關係 經絡의 活用
다. 表裏關係 經絡의 活用

第三章 結論 53

참고문헌 54

表 目次

< 表 1 > 經絡의 三通路 7

< 表 2 > 五行 色體表와 診斷 基準에 대한 理解 14

< 表 3 > 經脈의 構成要素 26

< 表 4 > 六氣의 病理現象 28

< 表 5 > 經脈構成과 特徵的 要素 30

< 表 6 > 是動病 所生病 39

< 表 7 > 陰·陽經의 五輸穴 45

< 表 8 > 開闔樞 理論에 따른 相通臟腑 50

< 表 9 > 天干相合..... 52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and the Five Circuits & Six Qi's

Jeong In Soon

Advisor: Prof. Lim Gyung Joon,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as the cyclic path of Qi and blood, is an important basis for diagnostics and treatment as it reflects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the human body. *Huangdi Neijing*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by pointing out "the twelve meridians are means for humans to live, causes of the formation of diseases, means to treat patients and causes of the onset of diseases. Thus, a novice should begin with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and even medical experts

should be careful with it."

One who studies medicine should first establish concepts because he or she can build logics, clarify meanings, and achieve unification of knowledge only by doing so. Oriental scholars have taken correct naming as the basis of philosophy because they believe that principles and practices correspond only with completion of correct naming as humans grasp, recognize, and judge things in terms of their names.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apply the theory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to clinical situations more easily and simply. As the names of meridians are combinations of their meanings and contents, one can not only understand the core contents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but also even operate them with the analysis of the names of the twelve meridians.

The names of meridians consist of three components: the sites there the meridians flow, six Qi's, and five phases, of which six Qi's and five phases are the core theoretical system of oriental medicine.

As a result of the exploration of the theory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ose three elements, this study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view of the human body based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is the core philosophy of oriental medicine as the human body corresponds to Great Nature, changes, and is adjusted.

2.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is realized by the body water ascending and fire descending with the reflection of the Five Phases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Circuits & Six Qi's.

3. The realization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by the body water ascending and fire descending is the result of the antagonism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relations of six Qi's including Greater Yin and Yang Brightness, Lesser Yin and Greater Yang, and Reverting Yin and Lesser Yang

4. We can tell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ve Circuits & Six Qi's are revealed at the five transport points of meridian vessels.

< 참조용어 >

經絡 meridian and collateral study

氣化 qi transformation

五運 five circuits

六氣 six qi

氣血 qi-blood

十二經脈 twelve meridians

經脈 meridian vessel

五行 five phases

天人相應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陰陽 yin-yang

水昇火降 body water ascending and fire descending

表裏 exterior and interior

太陰 greater yin

陽明 yang brightness

少陰 lesser yin

太陽 greater yang

厥陰 reverting yin

少陽 lesser yang

五輸穴 five transport points

第一章 緖論

經絡은 自然과 人間의 調和의 連結媒體, 氣血疏通의 通路로써 온갖 病을 診斷하고 治療하며 調節하는 곳으로 東洋醫學의 분야에서 經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經絡은 氣와 血의 循環 通路로서 人體의 生理와 病理現象이 반영되는 곳이며 診斷과 治療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經絡의 有無에 대한 硏究와 더불어 機能과 役割에 대한 硏究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近來에 들어서는 氣血通路로서의 經絡보다는 硏究의 방향이 神經學說에 비추어서 說明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는듯 하다.

예로부터 東洋에서는 오랜 探究 結果 宇宙와 人體가 相應한다하여 人體를 小宇宙라 하였으며 自然의 시스템이 人體의 構造와 機能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天人相應'이라고 表現하였다. 天人相應은 『黃帝內經』(이하 內經)의 중심적인 思想인데 全書에 걸쳐서 이러한 思想이 언급되고 있다. 古代부터 東洋醫學에서는 自然界의 秩序와 人體의 生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天人相應하게 하는 바탕이 經絡理論이다.

『靈樞』에서는 "經脈은 生死를 決定하고 온갖 病을 診斷, 治療하며 虛實을 調節할 수 있기 때문에 通達하지 않을 수 없다"[1]고 하였고 또 經脈에 대하여 "十二經脈은 사람이 살아가는 手段이요, 疾病이 형성되는 原因이며, 患者를 治療하는 手段이요, 病이 일어나는 原因이다. 따라서 初學者는 經脈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醫學에 造詣가 깊은 자라 할지라도 經脈에 注意해야 한다"[2]고 하여 經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內經』에서는 經絡에 대하여 "人間은 宇宙 自然界가 運行하는 法則에 합치하니 안으로는 五臟이 있어 五音 五色 五時 五味 五位와 相應하고, 밖으로는 六腑가 있어

---

1) 『靈樞.經脈篇』"經絡者 所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
2) 『靈樞.經別篇』"夫十二經脈者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 學之所始 工之所止也"

六律과 呼應하는데, 六律은 각 陰陽의 모든 經絡을 法則으로 정하여 十二月 十二辰 十二節 十二經水 十二時 十二經脈과 합치시킨 것이니 이것이 바로 五臟六腑가 宇宙 自然界의 運行法則에 호응하는 까닭이라고 했다"[3]고 했으며 "안으로는 臟腑에 이어지고 밖으로는 肢節에 連絡되는데"[4]하였고 "五臟의 道는 모두 經隧에서 나와 血氣를 움직이게 하고 血氣가 조화롭지 못하면 모든 疾病이 이로부터 變化하여 發生되는 것이다"[5]라 하여 人體의 內外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自然과 疏通하면서 生命活動을 가능하게 하는 經絡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經絡의 機能과 役割, 運用에 관한 文獻의 언급에 대하여 先知識人과 學者들의 論議는 많았으나 실제로 臨床에 適用하는 문제에 관한 硏究는 빈약하여 찾아보기 힘들었다.

經絡은 臟腑가 根本이 되어 生成한 氣血이 四肢百骸를 滋養하고 氣血을 循環시키는 體系이지만 臟腑의 영향만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어서 五行과 六氣에 대한 統合的인 理解가 있어야만 經絡反應을 이해하고 臨床에서 混亂을 야기 시키지 않을 것이다. 經絡의 理論的인 硏究 成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臨床運用이 抽象的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經絡氣化의 運行規律에 대한 統合的인 理解의 부족이 原因으로 여겨진다.

處方의 前提가 診斷이듯이 經絡氣化運用의 前提는 經脈에 대한 正確한 分析이 될 것이다.

본 論文은 '正名思想'에 근거하여 經脈名稱에 이미 臨床의 근거가 되는 論理가 담겨져 있다는 前提아래 출발하여 硏究하였다.

人體를 理解하기 위해서 先行되어야 할 것은 첫째, 人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自然界에 대한 硏究가 있어야 하며 時時刻刻 變化하는 自然의 變化에 人體가 어

---

3)『靈樞.. 經別篇』"余聞人之合於天道也 內有五藏 以應五節 五色五時五味五位也, 外有六府 以應六律 六律建陰陽 諸經而合十二月 十二辰 十二節 十二經水 十二時 十二經脈者 此五藏六府之 所以應天道"

4)『靈樞 . .海論篇』"夫十二經脈者 內屬於府藏 外絡於肢節"

5)『素問.. 調經論篇 "五臟之道 皆出於經隧 以行血氣 血氣不和 百病乃變化而生 是故守經隧焉"

떻게 適應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東洋醫學에서는 四時(四季節)에 따른 熱氣의 多少에 의해 人體가 받아들이는 變化에 중요한 意味를 부여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熱氣의 多少에 따른 四季節의 變化外에 날씨의 영향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람에 따라서는 季節의 變化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風 寒 暑 濕 燥 火의 氣運變化에 민감한 사람도 있다.

둘째, 自然에 相應해서 人體가 恒常性을 維持하게 하는 매체로서 經絡에 대한 論理的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論者는 經絡에 대한 理論的인 探究를 통하여 經絡의 構成原理를 파악하고 臨床에서 診斷과 治療에 대한 좀 더 쉽고 단순유용한 接近方法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二章 本論

第一節 經絡體系의 運行法則

1. 水昇火降

經絡은 五行과 六氣의 結合的 要素가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經絡의 氣化現象은 五行과 六氣에 대한 分析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五運六氣는 東洋醫學에서 人體를 理解하는 가장 基本的인 요소이다.

小宇宙인 사람은 自然의 절대법칙을 벗어나서 삶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醫學도 宇宙의 모든 變化現象의 根本인 陰陽 五行을 떠나 있을 수 없다고 여겼다. 自然에서의 氣化는 五運六氣의 運動法則이고 人體에서의 氣化는 五臟의 均衡活動의 結果로 生存을 위해 飮食物을 섭취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 結果, 經絡은 自然의 무쌍한 變化에 적응하기 위한 通路이면서 五臟의 機能이 發顯되는 곳으로서, 自然과 人間의 不調和, 臟腑, 마음의 狀態가 반영되어 經絡反應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自然과 人間의 不調和는 臟腑의 생체리듬을 깨뜨리고 自然의 氣運에 適應하지 못한 人體는 氣를 邪氣로 받아들이며 七情으로 傷한 마음은 心身을 교란시켜 臟腑를 傷하게 한다.

『素問 . .天元氣大論篇』에서 太始天元冊文을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太虛는 아득하고 드넓은데 變化의 根源을 세워놓으니 萬物이 여기에 힘입어 비롯되고 五運은 天地間에서 끊임없이 運行된다. 참되고 신령스런 氣를 베풀어 成就의 根源을 총괄해 나가니 九星이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七曜가 天道를 따라 끊임없이 돈다. 陰의 收斂이 있는가 하면 陽의 擴張이 있고 强健한 性質을 갖는가 하면 柔順한 性質을 갖기도 한다. 드러나지 않음과 드러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게

오고간다. 이런 쉼 없이 낳고 낳으며 끊임없이 바뀌고 바뀌는 道理를 통해 온갖 事物이 모두 蕃盛한다”[6]고 하였다. 즉 天氣의 끊임없는 變化運動에서 氣化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運氣理論에서는 臟象觀의 핵심이 臟象은 天象에 相應하고, 사람의 臟腑는 天氣에서 淵源한다고 보았다. “하늘에 五行이 있어 五位를 통솔하고 이로써 寒暑燥濕風을 生하고 사람은 五臟이 있어 五氣로 變化시켜 喜怒思憂恐을 發生시킨다”[7]고 했으며 “寒暑燥風火가 사람에게서 어떠한 상태에서 합치는가? … 東方은 風을 낳고 風은 木을 낳고 木은 酸味를 낳고 酸味는 肝을 낳고 肝은 筋을 낳고 筋은 心을 낳고 肝은 木을 주관한다. 그것이 하늘에 있으면 玄이 되고 사람에게서는 道가 되고 땅에서는 化가 된다. 化는 五味를 化生하고 道가 地를 낳고 玄은 神을 낳으며 化는 氣를 낳는다”[8]고 하여 五臟의 氣는 天地陰陽의 氣로부터 化生한 것이라 하였다.

또 “五臟이 네 季節과 應하여 各各의 氣를 거두어 받아들이는 것이 있느냐?” 물으니 “東方은 靑色인데 靑色의 氣는 肝을 통해 人體로 들어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고 그 精을 肝에 貯藏시켜 둔다. 그에서 발생하는 疾病은 驚駭이며 그 맛은 신맛이고 그에 따르는 종류는 풀과 나무이며 그에 속하는 家畜은 닭이고 그에 맞는 穀食은 보리이며 그 네 季節에 應하는 하늘의 별은 歲星이다. 이로써 봄의 氣는 머리에 있으며 그에 따르는 소리는 角이고 그 숫자는 八이다. 이로써 疾病이 筋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냄새는 누린내이다”[9]라고 하여 五臟의 氣色이 네 季節의 陰陽과 相應한다는 것을 밝혔다.

臟象은 天象의 영향을 받는데 病理的 側面에서는 病候가 반드시 氣候에 從屬된다.

---

6)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眞靈, 摠統坤元, 九星懸朗, 七曜周旋. 曰陰曰陽,曰柔曰剛, 幽顯, 旣位, 寒暑弛張, 生生化化, 品物咸章”

7)『素問. 天元氣大論』“天有五行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人有五藏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

8)『素問. 五運行大論』“寒暑燥濕風火, 在人合之奈何?……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化生氣”

9)『素問 金匱眞言論篇』“東方 靑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發病驚駭 其味酸 其類草木 其畜鷄 其穀麥 其應四時 上爲歲星 是以春氣在頭也 其音角 其數八 是以知病之在筋也 其臭臊”

그래서『內經』의 運氣七篇[10]에서는 "主歲의 六氣가 五臟을 해친다"[11]고 하였다.

이와 같이 自然의 氣化現象이 人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臟腑의 氣化는 天人相應에 따라 天地間의 陰陽運動에서 비롯되어 經絡을 통해 發顯된다고 할 수 있다.

大宇宙의 秩序에 순응하기 위한 小宇宙의 經絡體系는 水昇火降이 運行法則이며 經絡的으로는 心腎이 주축이 된다[12]. 그러나 水火의 昇降運動은 左右의 陰陽의 도움이 있어야 上下左右의 經絡秩序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地는 만물의 上下이고, 陰陽은 血氣 있는 男女이며, 左右는 陰陽이 循環하는 通路이고, 水火는 陰陽의 徵兆이다. 그러므로 陰陽은 萬物의 本源이다"[13]라고 表現 하였다. 이 뜻은 上下의 陰陽運動이 左右의 變化에 의해 작용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朴讚國은「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 注釋」에서 "五行의 變化에 의해서 陰陽의 氣가 運行할 때 左側으로는 升하고 右側으로는 降하니 左右는 陰陽의 道路가 된다"고 풀이했다.

氣는 左側으로 昇하여 火에 이르고 右側으로 下降하여 水에 이르는데 水火는 陰陽의 드러나는 곳이 되므로 陰陽의 徵兆라고 한 것이고, 이는 一年 四時의 또 다른 표현이며 天地自然에 相應하는 人體의 陰陽을 論하고자 하는 것이다.

人體의 이상적인 균형상태인 水昇火降과 左右陰陽은 東西南北, 上下左右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東方木의 生하는 氣運과 西方金의 收斂하는 氣運, 分散하는 南方火와 凝縮하는 北方水로 大別해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四時의 變化를 人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人體陰陽은 天地陰陽이 本源임을 항상 밝히고 있다.

---

10) '天元紀大論 五常政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至眞要大論, 六元正紀大論, 氣交變大論' 등 七篇

11)『素問. 至眞要大論』"歲主臟害"

12)『素問 六微旨大論』우주의 변화원리는 근본이 天地之間의 水昇火降이다.

13)『素問 陰陽應象大論』"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2. 經絡의 流注

陰,陽經絡의 流注循環과 관련하여 陸瘦燕은 '陸瘦燕鍼灸論'에서 經絡의 流注秩序를 "두 손을 위로 치켜들면 陰經은 모두 上行하고 陽經은 모두 下行한다. 단지 '陰升陽降' 네 글자만을 기억하고 있으면 十二經絡의 注向을 모두 알 수 있다"[14]고 하여 陰經은 上升하고 陽經은 下降한다는 流注法則을 제시하였는데 陰陽經絡의 特性과 規律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는 經絡流注를 說明하기 위함이지 실제로는 說明에 다소 어긋나는 部分도 있다. 예를 들어 手三陽經의 경우, 팔에서 머리로 가는 陽經絡이 下行한다고 보는 것은 臨床時에 머리의 氣를 내리기 위해 手三陽經을 取穴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人體의 經絡流注法則을 說明하기 위해 設定한 法則이라는 면에서는 인정 할만하다.

人體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前面部의 太陰經絡은 오르고 陽明經絡은 내리며, 後面部는 少陰經絡은 오르고 太陽經絡은 내리고, 側面部로 흐르는 厥陰經絡은 오르고 少陽經絡은 내리면서 水昇火降을 주도한다. 陰經絡은 本氣인 陽氣를 끌어 올리고 陽經絡은 本氣인 陰氣를 내리면서 人體의 恒常性을 유지한다.(表 1 참고)

< 表 1 > 經絡의 三通路

太陰－陽明經(全面部)		少陰經－太陽經(後面部)		厥陰經－少陽經(側面部)	
天		天		天	
↑	↓	↑	↓	↑	↓
手太陰經	手陽明經	手少陰經	手太陽經	手厥陰經	手少陽經
↑	↓	↑	↓	↑	↓
足太陰經	足陽明經	足少陰經	足太陽經	足厥陰經	足少陽經
↑	↓	↑	↓	↑	↓
地		地		地	

14) 陸瘦燕.「陸瘦燕鍼灸論」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95 "如將雙手上擧則所有的陰經 皆向上行所有的陰經 都何下行 只要記住 '陰升陽降'四字則 十二經脈則走向 卽可全部掌握"

第二節　經絡의 構成要素

1. 陰陽 五行

가. 陰陽

『醫易通說』에서 “太極이 動運動을 하면 陽이 생기고 靜運動을 하면 陰이 생기는데 이리하여 兩儀가 化生한다. 兩儀는 한쪽은 陰이고 한쪽은 陽이다.”[15]라고 하여 太極에서 陰陽이 變化, 生成함을 設하였고『素問. 陰陽應象大論篇』에는 “陰陽은 하늘과 땅의 도리요, 萬物의 벼리이며 變化의 父母이며 낳고 죽이는 根本과 始作이며 神明의 곳집이니, 病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根本에서 구해야 한다. 故로 陽을 쌓아 하늘을 하고 陰을 쌓아 땅을 하니, 陰은 고요하고 陽은 날뛰어 陽은 氣를 피어나게 하며 陰은 形體를 이루어가고, 陽은 氣를 속으로 거두면서 形을 떨쳐버리고 陰은 氣를 갈무리하며, 陽은 精을 氣로 탈바꾸어 陽氣를 발생시키고 陰은 氣를 形으로 바꾸어 形體를 이루게 하며, 寒이 極에 달하면 熱을 生하고 熱이 極에 달하면 寒을 生하여 寒氣는 濁을 生하고 熱氣는 淸을 生하니, 淸氣가 아래에 있으면 飧泄을 일으키고 濁氣가 위에 있으면 膨脹을 일으키니, 이것이 陰陽이 반대로 作用함이요, 病이 거스르고 따르는 機轉이다”[16]라고 하여서 陰陽運動의 性質과 作用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하였다.

또『素問 . 金匱眞言論篇』에서 “陰 속에 陰이 있고 陽 속에 陽이 있다. 太陽이 떠오르는 正午까지는 하늘의 陽이고 陽中의 陽이다. 正午에서 해질녘까지는 하늘의 陽이며 陽 속의 陰이다”[17]라고 하였고,『素問 . 天元氣大論篇』에서 “寒暑燥濕風火는

---

15)『醫易通說』唐宗海 兩儀篇 “太極 動而生陽 靜而生陰 于是乎化生兩儀 兩儀者一陰一陽也”

16)『黃帝內經 素問』박찬국. 陰陽應象大論篇 第五,第一章,黃帝 曰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 必求於本. 故 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寒極生熱 熱極生寒 寒氣生濁 熱氣生淸, 淸氣在下 則生飧泄 濁氣在上 則生膨脹, 此 陰陽反作 病之逆從也.

17)『素問 金匱眞言論』‘陰中有陰 陽中有陽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하늘의 陰陽이며 三陰과 三陽이 위에서 받든다. 木火土金水는 땅의 陰陽이며 生長化收藏이 아래에서 應한다 … 그러므로 陽 속에도 陰이 있고 陰 속에도 陽이 있다"[18] 고 하여 陰陽運動의 相對性에 대하여 論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한낮은 陽이 되고 밤중은 陰이 되며, 봄여름은 陽이 되고, 가을겨울은 陰에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自然의 陰陽變化는 人體의 陰陽運動의 根源이며 人體의 不調和도 陰陽運動의 結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養生을 위해서는 自然의 變化原理를 파악하여 自然에 順應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四季節의 氣運에 順應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要素라는 것은 內經의 일관된 思想이다. 즉 해의 길이에 맞추어서 調和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養生에 있어서는 必須不可缺한 要素이기도 하다. 해가 떠있는 한 낮은 陽이고 해가 진 밤은 陰에 속하는데 陰陽의 變化가 四季節이 다르니 陰陽氣의 多少에 맞추어 살아야 함을 內經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素問 . 四氣調神大論篇』에는 "봄의 세 달은 이를 일러 發陳이라 하니, 하늘과 땅이 모두 살리려 하여 萬物이 이로써 영화로우니,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뜰에서 넓게 거닐고 … 萬物을 살리고 죽이지 말 것이며, 자연에 주고 빼앗지 말 것이며 … 이것이 春氣의 마땅히 生을 기르는 道이다. 이를 거스르면 곧 肝을 상하여 여름에 寒變을 앓아서, 하늘로부터 받은 長 하라는 명령을 잘 받들 수 없다.

여름의 세 달은 이를 일러 蕃秀라 하니, 하늘과 땅의 氣運이 사귀어 萬物이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를 싫어하지 말 것이며 … 이것이 夏氣의 마땅히 長을 기르는 道이다. 이를 거스르면 곧 心을 상하여 가을에 痎瘧을 앓고, 하늘로부터 받은 收 하라는 명령을 잘 받들 수 없어서, 겨울이 되면 重病을 앓을 것이다.

가을의 세 달은 이를 일러 容平이라 하니 … 天氣는 이미 급하며 地氣는 이미 밝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닭과 더불어 함께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志

---

18)『素問. 天元氣大論篇』"寒暑燥濕風火 天地陰陽也 三陰三陽上奉之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下應之… 故陽中有陰 陰中有陽"

로 하여금 便安하게 하여서 가을의 肅殺하는 氣運을 느슨하게 하며, 神氣를 거두어들여 秋氣로 하여금 平穩하게 하며, 그 志를 밖으로 하지 않아 肺氣로 하여금 맑게 할 것이니, 이것이 秋氣의 마땅히 收를 기르는 道이다. 이를 거스르면 곧 肺를 상하여 겨울에 飧泄을 앓아서, 하늘로부터 받은 藏 하라는 命令을 잘 받들 수 없다.

겨울의 세 달은 이를 일러 閉藏이라 하니,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므로 陽氣를 動搖하지 말 것이니, 일찍 잠자리에 들고 늦게 일어나 반드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 찬 것은 멀리하고 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되 皮膚로 땀을 많이 흘려 氣로 하여금 지나치게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冬氣의 마땅히 藏을 기르는 道이다. 이를 거스르면 곧 腎을 상하여 봄에 痿厥을 앓아서, 하늘로부터 받은 生 하라는 命令을 잘 받들 수 없다"[19]라고 하여 季節의 氣運에 거스르지 않은 삶이 養生의 基本이라 하였다.

또『素問 . 四氣調神大論篇』에 "봄의 氣를 拒逆하면 少陽이 生成되지 않아 肝氣가 안에서 變化하여 疾病이 있게 되고 여름의 氣를 拒逆하면 太陽이 자라나지 못하여 心氣가 안에서 空虛하게 되어 疾病이 있게 되고 ... "[20]하여 變化에 順應하지 않았을 때의 病理와 그 原因에 대해 說했으며 "聖人은 봄과 여름에는 陽을 保養시키고 가을 겨울에는 陰을 保養하여 萬物의 根本을 따른다"[21]하여 自然의 陰陽道를 따르는 것이 養生의 根本이라는 것을 말하였고, "聖人은 이미 發病한 것을 治療하지 않고 發生하기 전에 豫防하며 이미 어지러운 상태를 다스리지 않고 어지러워짐을 보고 다스린다"[22]고 하여 예방하는 것이 더 큰 養生임을 밝혔다.

東洋의 人體觀의 基本原理는 陰陽, 五行이다. 그 중에서 특히 陰陽은 事物運動의

---

19)『素問 . 四氣調神大論篇』"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夜臥早起 廣步於庭... 生而勿殺 予而勿奪... 此 春氣之應 養生之道也 逆之則傷肝하야 夏爲寒變 奉長者 少 夏三月 此 謂蕃秀 天地氣交 萬物華實 夜臥早起 無厭於日... 此 夏氣之應養長之道也 逆之則傷心 秋爲痎瘧 奉收者 少 冬至重病 秋三月 此 謂容平... 天氣以急 地氣以明 早臥早起 與鷄俱興 使志安寧 以緩秋刑 收斂神氣 使秋氣平 無外其志 使肺氣淸, 此 秋氣之應養收之道也. 逆之則傷肺 冬爲飧泄 奉藏者 少 冬三月 此 謂閉藏 水冰地坼 無擾乎陽 早臥晩起 必待日光... 去寒就溫 無泄皮膚 使氣亟奪 此 冬氣之應養藏之道也 逆之則傷腎 春爲痿厥 奉生者 少"

20)『素問 四氣調神大論篇』"逆春氣則少陽不生 肝氣內變 逆夏氣則太陽不長 心氣內洞..."

21)『素問 四氣調神大論篇』"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22)『素問 四氣調神大論篇』"是故聖人 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

根本인데 事物이 가지고 있는 兩面性을 일러서 陰陽이라고 한다. 모든 事物은 어둠과 밝음처럼 서로 相對되는 運動方式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事物運動의 가장 基本的인 運動方式이 되는 것이다.

陰陽은 '伏羲'라는 人物에 의해 哲學的으로 槪念化 되기 전에는 다분히 現實的이었다. 따뜻한 陽의 氣運이 늘어나는 봄, 여름과 차가운 氣運이 늘어나는 가을, 겨울에 依存해서 農事를 짓고 삶을 유지했던 古代人들에겐 더없이 유용한 智慧이기도 했다. 自然에서의 陰陽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을 體系的으로 서술한 資料가『黃帝內經』이라 볼 수 있다.

經絡에도 自然界의 變化運動처럼 陰陽이 있으며 이는 陰經絡 陽經絡으로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陰經絡은 陰을 天에 이르게 하고 陽經絡은 陽을 地에 이르게 하여 水昇火降을 이루게 하여 人體의 均衡을 유지하게 한다.

즉 經絡에서의 陰陽은 오르고 내리는 氣運이며 나고 드는 氣運이고 따뜻하고 시원한 氣運이며 뜨겁고 차게 하는 性質을 지니고 있다.

나. 五行

五行은 陰陽의 分合作用에 의해 다섯 가지의 性質이 생겨난 것을 五行이라 하는데 宇宙 萬物을 다섯 가지 運動方式으로 理解하는 것을 말하며 宇宙의 모든 움직임은 이 다섯 가지 性質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素問 . 天元氣大論篇』에서는 "하늘에 陰陽이 있듯이 땅에도 陰陽이 있다. 木火土金水는 땅의 陰陽이며 ... "라고 하여 五行의 木 火 土 金 水도 陰陽運動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木, 火, 土, 金, 水로 표현되는데 各各의 五行은 形과 質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예를 들어 木은 나무라는 形 外에 湧出하는 象을 함께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木은 湧出, 發散하는 氣運을 나타낸다.『素問 . 陰陽離合論篇』에서 "生命이 움트는 일은 봄을 따라서 行하고"[23]라고 한 뜻은 봄의 湧出, 發散하는 氣運을 표현한 것으

로서 升함을 主로 하는 봄의 象은 싹이 자라나는 氣運으로 聚象 할 수 있다. 그래서 봄에는 나무의 싹을 잘라도 다시 오르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봄의 象과 가장 유사한 臟腑가 人體의 臟腑中에서 肝[24]이라 여겨서 五行의 木에 배속되어 있다. 그래서 肝의 氣運은 대체로 氣運이 上向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

肝經絡의 경우, 經絡反應 또한 木의 이러한 特性이 반영된 結果라 할 수 있으며 木에 해당하는 肝膽 經絡은 陰的作用인 肝과 陽的作用인 膽의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火라는 것은 分散을 위주로 하는 氣運이다[25]. 木氣가 湧出하는 形象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火氣는 그 氣가 弱化되어서 分裂되어가는 形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素問 . 陰陽離合論篇』에서는 "成長하는 일은 여름을 따라서 한다"[26]라고 하여 蕃盛하여 浮함이 主가 됨을 表現하였다. 季節로는 여름에 해당하며 臟腑는 心臟인데[27] 火氣는 萬物이 가지를 뻗어나가는 形局과 같아서 木機가 消盡되고 虛勢로 접어드는 여름과 비슷하여 人體도 여름이 되어 火氣가 넘치면 다소 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言及했다시피 "天人相應"의 東洋醫學的 法則에 따라 人體가 自然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人體의 心臟과 小腸經絡은 火氣의 特性이 반영된 通路이며 心臟은 陰에 屬하여 本氣가 따뜻하게 하는 作用을 하고 小腸經絡은 陽에 屬하여 本氣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作用을 한다.

土는 발전해가던 木火의 기운이 收斂之氣로 돌아가기 前 단계의 中和之氣라 할 수 있다. 分裂과 成長을 거듭하던 氣運이 中止되고 成熟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火의 무한 分裂이 멈추어야 하는데 이때의 土를 絶對中和之氣라 이른다. 韓東錫은 '土의 性質은 萬物을 生하게 하는 作用이 또 있으니 이것은 土의 性質이 모든 生物을 滋養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土는 반드시 火氣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作用과 效能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四季에는 地支의 土가 한 개씩 다

---

23)『素問 . 陰陽離合論篇』"生因春"
24)『素問 . 臟氣法時論篇』"肝主春"
25)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대원출판. p65.
26)『素問 . 陰陽離合論篇』"長因夏"
27)『素問 . 臟氣法時論篇』"心主夏"

作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未土(長夏)만을 논한 것'[28]이라 하여 五季中의 長夏의 氣를 설명하였다. 季節로는 長夏와 換節期(辰戌丑未)가 土에 해당되며 臟腑는 脾臟이고[29], 中和之氣로써 土의 作用은 脾, 胃 經絡과 相通하며 이 또한 氣化作用 통해 陰陽運動을 한다.

金은 陽의 氣運이 木, 火에서 發散 되다가 안으로 潛伏하여 들어가는 收斂의 氣運으로, 이를『素問 . 陰陽離合論篇』에서 "거두어 들이는 일은 가을을 따라 한다"[30]고 하여 收斂하여 降함이 主가 됨을 언급하였다. 發散되는 氣運이 收斂되는 過程이어서 植物이 外形을 줄여서 外部의 싸늘한 氣運에 적응하려고 한다. 金은 木과는 反對의 作用을 하는 氣運이며 收斂을 위주로 하여 陽氣를 거두는 作用을 한다. 方位로는 西方이고 季節은 가을이며 臟腑로는 肺이고[31], 다가올 겨울의 凝固作用의 전단계에 해당된다. 金의 作用은 臟腑中에 肺, 大腸과 相通하며 陰은 肺, 陽은 大腸으로써 經絡의 陰陽을 조절한다.

水는 萬物의 生長이 收藏되는 氣運을 이르며 凝固, 凝縮되는 氣運으로서 가을부터 시작된 收斂之氣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素問 . 陰陽離合論篇』에서 "貯藏하는 일은 겨울을 따라 한다"[32]고 하여 潛藏하여 沈함이 主가 됨을 언급하였다. 金氣가 表面이 收斂된것이라면 水氣는 內部의 깊은 곳까지 凝固하게 되어 속의 陽氣가 植物의 核과 같이 다음의 새로운 生命의 氣運을 창조한다. 方位로는 北方이고 季節은 겨울이며 人體에서는 腎臟[33]이 해당된다. 經絡으로는 腎臟, 膀胱을 이르며 陰인 腎臟은 오르고 陽인 膀胱은 내려가며 陰陽을 조절한다.

五行은 이상과 같이 木氣의 湧出, 火氣의 分散, 土氣의 中和, 金氣의 收斂, 水氣의 凝固는 四季節의 變化를 나타내며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나가 잎이 무성하다가 잎을 거두어들이고 줄기가 시들어 결국 처음의 씨앗으로 돌아가는 變化

---

28)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68
29)『素問 . 臟氣法時論篇』"脾主長夏"
30)『素問 . 陰陽離合論篇』"收因秋"
31)『素問 . 臟氣法時論篇』"肺主秋"
32)『素問 . 陰陽離合論篇』"藏因冬"
33)『素問 . 臟氣法時論篇』"腎主冬"

를 나타내는데 이 같은 原理를 相生原理라고 한다.

五行은 相生作用만 하는 것이 아니라 相剋, 相侮, 相乘등의 生理, 病理 法則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陰陽作用을 發顯해간다. 즉 萬物은 스스로 이와 같은 法則을 가지고 形과 氣로, 寒熱로 변해가면서 陰陽을 나타내며 表面的으로는 陰陽으로, 本質的으로는 五行의 屬性을 가지고 있다.

人體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宇宙의 自然法則에 대한 理解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宇宙의 運動法則인 五行의 變化運動이 기본이 된다.

五運의 本質은 다섯 가지의 象으로서, 象은 形과 對比되는 槪念이고 象의 內容은 數를 통해 표현되는데 數는 象의 거울과 같아서 事物의 機微이며 徵兆[34]를 나타내고 東洋醫學에서 診斷의 根據로 삼는 중요한 理論的 토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東洋醫學의 중요한 基本槪念은 象과 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한 五行과 臟腑, 季節과 臟腑는 이 같은 象數와 깊은 연관이 있다.

象이란 凡人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있는 準備를 갖춘 사람은 볼 수 있는 모습(이미지)을 이르는 것이며 無形이 有形으로 轉換하는 中間에 나타나는 것을 이르고[35] 數란 分合算 現象을 가리킨다. 이를 일러서 象數原理라고 하며 東洋醫學의 哲學的 바탕이 된다.

西洋에서도 피타고라스가 '萬物은 無限한 것과 有限한 것이 綜合하여 生成하는 것이니 이것은 數의 奇偶가 結合하여 變化하는 것과 同一한 原理'라고 한 것과 플라톤이 '幾何學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등을 보면 西洋哲學과 數와의 關係에 대한 認識을 엿볼 수 있는데 象數의 重要性을 古代부터 認識한 것으로 보인다.

象數는 河圖와 洛書가 根源[36]이나 여기서는 言及을 피한다. 다만 『內經』에 언급된 象數原理를 바탕으로 한 五行에 대한 分類를 아래에(表 2) 첨부하여 臟腑診斷의 근거로 삼는다.

---

34)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194
35)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55
36) 최동환 : 한역 . 지혜의 나무. 제6장 龍圖 龜書論

< 表 2 >　　五行 色體表와 診斷 基準에 대한 이해

五 行	木	火	土	金	水
五臟	足厥陰肝	手少陰心 (手厥陰心包)	足太陰脾	手太陰肺	足少陰腎
五腑	足少陽膽	手太陽小腸 (手少陽三焦)	足陽明胃	手陽明大腸	足太陽膀胱
五色	靑	赤	黃	白	黑
五志	怒	笑	思	憂	恐
五過志	上氣(怒)	氣緩(喜)	氣結(思)	氣消(悲)	下氣(恐)
五官	眼	舌(耳)	口脣	鼻	耳(二陰)
五味	酸	苦	甘	辛	鹹
五主	筋,膜,腱	血脈	肌肉	皮膚	骨髓
五惡	風	熱	濕	燥	寒
五過	久行傷筋	久視傷血	久坐傷肉	久臥傷氣	久立傷骨
發病部位	左	上	中	右	下
五病變	多語	噫	呑	咳	欠
五香	臊	焦	香	腥	腐
異動	握	憂	喧	咳嗽	寒慄
五音	角 (ㄱ,ㄲ,ㅋ,牙音)	徵 (ㄴ,ㄷ,ㅌ,舌音)	宮 (ㅇ,ㅎ,喉音)	商 (ㅅ,ㅈ,ㅊ,齒音)	羽 (ㅁ,ㅂ,ㅍ,脣音)
五液	淚	汗	涎	涕	唾
五華	爪甲	顔色(舌)	乳房,脣	體毛	髮
五役(主管)	色	臭	味	音聲	液
五聲	呼	多言	歌	悲,哭	呻吟
五精氣	魂	神	意智	魄	精志
五方	東	南	中	西	北
五季	春	夏	季夏	秋	冬
天干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地支	寅卯	巳午	辰戌丑未	申酉	亥子
五性	暄	暑	溽	凉	凜
相生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相剋	金克木(木畏金)	水剋火(火畏水)	木剋土(土畏木)	火克金(金畏火)	土克水(水畏土)
勝志	悲勝怒	恐勝喜	怒勝思	喜勝憂	思勝恐
五果	李	杏	棗	桃	栗
五畜	犬(鷄)	羊	牛	鷄(犬)	猪

2. 三陰 三陽

가. 五運과 六氣

陰陽과 五運.六氣의 特性에 비추어서 臟腑, 經絡의 關係를 考察하는 것은 經絡의 氣化와 運用을 理解하는 전제가 된다.

『素問 . 金匱眞言論篇』에서는 " … 陰 가운데에 陰이 있으며 陽 가운데에 陽이 있다고 하니 해 뜰 무렵부터 한낮까지는 하늘의 陽이니 陽中의 陽이요, 한낮부터 해질 무렵까지는 하늘의 陽이니 陽中의 陰이며, 저녁 무렵부터 닭 울 무렵까지는 하늘의 陰이니 陰中의 陰이요, 닭 울 무렵부터 해 뜰 무렵까지는 하늘의 陰이니 陰中의 陽이라, 故로 사람이 또한 이에 順應한다. 무릇 사람의 陰陽을 말한다면, 外가 陽이 되며 內가 陰이 되고, 사람 몸의 陰陽을 論한다면 … 陽속의 陽은 心이며 … 陽속의 陰은 肺이며 … 陰속의 陰은 腎이며 … 陰속의 陽은 肝이며 陰속의 至陰은 脾이다. 이것이 모두 人體의 陰陽과 表裏와 內外와 雌雄이 서로 順應함이니, 故로 능히 하늘의 陰陽에 順應한다"[37]라고 하여 天地의 陰陽에 相應하는 人體의 陰陽을 論하였고,

37)『素問.金匱眞言論篇』"故 日陰中有陰 陽中有陽,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日中至黃昏 天之陽 陽中之陰也, 合夜至雞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雞鳴至平旦 天之陰 陰中之陽也, 故 人亦應之.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 陽中之陽心也 … 陽中之陰肺也 …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의 특징을 인체의 肝, 心, 脾, 肺, 腎에 비유하여[38] 五行과 臟腑를 論하였다. 또,『素問 . 至眞要大論篇』에서는“淸氣가 크게 밀려오면 燥가 승하여 風木이 邪氣를 받아서 肝에 病이 생기고, 熱氣가 크게 밀려오면 火가 勝하여 金燥가 邪氣를 받아서 肺에 病이 發生하고, 寒氣가 크게 밀려오면 水가 勝한 것으로 火熱이 邪氣를 받아서 心에 病이 생기고, 濕氣가 크게 밀려오면 土가 勝한 것으로 寒水가 邪氣를 받아서 腎에 病이 생기고, 風氣가 크게 밀려오면 木이 勝한 것으로 土濕이 邪氣를 받아서 脾에 病이 發病 한다”[39]고 하였고“모든 病이 風寒暑濕燥火로부터 發病하여 化하기도 하고 變하기도 한다”[40]”고 하여 六氣의 氣候가 臟腑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였다.

이를 보면 天地陰陽에서 五行이 生하여 人體가 그 法則을 따르고 自然의 氣候가 異常變化를 일으키면 五臟에 病變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五行과 六氣는 人體에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五行과 六氣의 관계를 살펴보면『素問 . 陰陽應象大論篇』에서“하늘은 四時五行을 두어 스스로 生長收藏을 하여 寒暑燥濕風을 만들며 사람은 五臟을 두어 五氣를 탈바꿔 喜怒悲憂恐을 만든다”[41]라고 하였는데 그 意味를 분석하면 五運에서 六氣가 生化함을 알 수 있고, 또 臟腑는 能動的으로 生化氣하는 作用을 하고 經絡은 受動的인 變化를 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고 韓東錫은“運은 변화하는 幻像이므로 五行은 主體이고 運은 客體인 것이다. 그러나 五行의 法則이 지구에서 行해질 때에는 五行은 반드시 六氣로 變化하여 가지고 主體의 役割을 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결국 宇宙의 運動에 있어서 自律的 變化를 일으키는 運은 客體가 되고, 六氣가 主體가 된다

陰中之陰腎也 … 陰中之陽肝也 … 陰中之至陰脾也 此 皆陰陽表裏 內外雌雄 相輸應也, 故 以應天之陰陽也”

38)『素問 . 臟氣法時論篇』“肝主春”“心主夏”“脾主長夏”“肺主秋”“腎主冬”

39)『素問 . 至眞要大論篇』“淸氣大來 燥之勝也 風木受邪 肝病生焉 熱氣大來 火之勝也 燥金受邪 肺病生焉 寒氣大來 水之勝也 火熱受邪 心病生焉 濕氣大來 土之勝也 寒水受邪 腎病生焉 風氣大來 木之勝也 土濕受邪 脾病生焉”

40)『素問 . 至眞要大論篇』“百病之生也 皆生於風寒暑濕燥火 以之化之變也”

41)『素問 . 陰陽應象大論篇』“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는 結論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物은 六氣의 영향하에서 生成되는 것이다"[42] 라고 하였는데 五運과 六氣의 關係를 說明하면서 六氣의 主體的 作用을 말하였다.

또『素問 . 陰陽應象大論篇』에서 "陽을 쌓아 하늘을 하고 陰을 쌓아 땅을 하니, 陰은 고요하고 陽은 날뛰어 陽은 氣를 피어나게 하며 陰은 形體를 이루어가고 陽은 氣를 속으로 거두면서 形을 떨쳐버리고 陰은 氣를 갈무리하며 陽은 精을 氣로 탈 바꾸어 陽氣를 發生시키고 陰은 氣를 形으로 바꾸어 形體를 이루게 하며 ... "[43]라고 한 意味를 살펴보면 臟腑와 經絡의 相互關係는 陰과 陽 그리고 五運과 六氣의 關係로 對比하여 설명되어진다. 즉 臟腑는 속에서 精化氣하여 陽氣를 만들어 五運의 作用과 相通하고, 經絡은 밖에서 氣를 形으로 바꾸어 陰成形하는 六氣의 作用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經脈은 五行의 生化氣作用과 六氣의 調節作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手太陰肺經, 足太陰脾經,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 手少陰心經, 足少陰腎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 "등과 같이 臟腑經絡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五運과 六氣의 內容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五行이란 自然의 運動 法則을 말하는 것이고, 五運이라고 하면 五行이 實現하는 自然現象의 變化自體의 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44]이다.

六氣는 風寒暑濕燥火등과 같이 五行의 바탕위에서 생겨난 運行之氣를 말하는데 五行과 六氣가 結合되어서 經絡反應으로 나타나므로 五行과 六氣는 經絡을 理解하는데 必須 不可缺한 요소이다.

自然의 變化는 五運六氣의 變化運動이고 人體가 그에 相應하여 따르므로 臟腑와 經絡의 關係는 五運과 六氣의 運動特性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고 臟腑와 六氣로 構成된 經絡의 氣化는 五運六氣의 變化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臟腑와 六氣는 生

---

42)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대원출판. p.122

43)『素問 . 陰陽應象大論』"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

44)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119. 五行이 自然의 變化하는 法則이라면 五運은 宇宙의 本質的인 槪念이나 法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自律的으로 宇宙가 變化하는 法則과 象, 즉 그의 內面에서 일어나는 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이다.

命運動을 主導하는 運動主體와 그 運動을 統一하는 主宰者[45]로 볼 수 있다.

또 『素問 . .陰陽應象大論篇』에서는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이라 하였는데 分析하면 五行인 東方에서 六氣인 風을 生하고 風은 다시 五運을 통괄하여 肝을 生한다고 하였으며 南方에서는 熱을 生하고 熱은 다시 火氣를 推動시켜 心을 生한다하여 五運이 六氣를 生하고 六氣는 다시 五運을 統一하는 關係임을 理解 할 수 있다. 五運이 六氣를 生하고 六氣가 다시 五運을 統一하는 關係論에 의하면 六氣論이 經絡氣化의 主導的인 立場이란 것을 알 수 있고 經絡運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상을 整理하면 五運六氣의 關係는 五運은 五臟에, 六氣는 六經에 比喩할 수 있으며 六氣가 經絡氣化의 主導的인 役割을 하므로 經絡氣化를 理解하고 運用할 수 있는 理論的 바탕이 된다. 體用理論으로 보면 臟腑와 六經의 關係에 있어서 臟腑는 体, 六經은 用으로 對比 된다. 이는 또 臟과 腑의 關係에서도 陽인 六腑는 体인 五臟의 機能을 수행하는 陽的機能으로서 用의 作用을 하므로, 經絡運用方法을 理解하는 方法이 된다. 經絡은 六氣의 영향이 크고 臟腑는 五行의 法則으로 說明할 수 있는데 經絡은 五運에 相應하는 臟腑와 六氣에 相應하는 經氣로 構成되어 있고 서로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統合的인 이해가 필요하다.

나. 三陰三陽

『素問 . 天元氣大論篇』에 "陰陽의 氣는 각각 多少가 있으니, 故로 三陰三陽이라 하는 것"[46]이라 하였고 『素問 . 至眞要大論篇』에도 "陰陽이 셋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듣고 싶다. 답하기를 氣에는 많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르게 作用하는 것을 뜻

---

45)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252 運이라는 것은 宇宙나 人間에 있어서 作用하는 運動의 主體이고, 氣라는 것은 그 運動을 統一하는 主宰인 것이다. 運이란 生命運動의 主體이고, 氣란 것은 形質의 통일 主體이다. 즉 人間등은 運의 作用이 主가 되고 초목과 같이 外氣에 의지하여서 生을 유지하는 것은 氣의 作用이 主體가 되는 것이다.

46)『素問, 天元氣大論篇』"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 三陰三陽也"

한다”[47]고 하여 三陰 三陽의 분류는 陰陽의 氣의 多少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六氣는 三陰三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로 이루어져 있다.

韓東錫은 ‘宇宙의 運動이란 본시 陰陽運動이다. 陰陽에는 三陰과 三陽이 있는 것인 즉, 厥陰 少陰 太陰이 끝난다는 말은 바로 三陰運動이 다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하여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方位로 볼 때 분명히 東南의 物生運動의 過程이었다. 그런즉, 그것은 陽生運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陰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는 점이다. 東南에서 陽運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本質에 대한 觀察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陰運動이라고 한 것은 그의 作用面을 論한 것이다. 그런즉 事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體用으로 論하는 것이 ...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變化는 반드시 現象과 內容面이 서로 相反된 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48]라고 하여 陰陽運動의 體用에 대한 論理를 통하여 六氣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太陽寒水라고 했을 때 ‘太陽’은 用에 해당하고 ‘寒水’는 體에 해당하며, 少陰君火의 경우에는 ‘少陰’이 用에 해당하고 ‘君火’가 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年中 陰陽氣의 흐름을 보면 主氣는 厥陰 少陰 少陽, 太陰 陽明 太陽이고 客氣의 흐름은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이다. 主氣는 地氣로써 本이고 形體를 이루며 매년 일정한 法則에 의해 秩序를 지키는데 春夏秋冬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五運의 相生法則에 따라 變化하는 氣로서『素問 . 六微旨大論篇』에 “땅의 이치가 여섯 節氣의 위에 어떻게 응하는지 듣고 싶다. 답하기를 해가 솟아오르는 顯明의 오른쪽은 君火의 위이고 君火의 오른쪽으로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나 一步를 행하면 相火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를 行하면 土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를 行하면 金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를 行하면 水氣가 다스린다. 다시 一步를 行하면 木氣가 다스리고 다시 一步를 行하면 君火가 다스린다.”[49]고 한데 근거한다.

---

47)『至眞要大論篇』“願聞陰陽之三也... 氣有多少 異用也”

48)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155p

49)『六微旨大論篇』“願聞地理之應 六節氣位 何如 岐伯曰 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

客氣는 天氣로써 標이며 三陰三陽의 盛衰에 따라 客氣부리 듯 찾아오는 異常氣候인데 여름에 우박이 내린다거나 겨울에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는 등의 날씨는 客氣로 인한 것이다. 客氣의 運行順序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이다.『素問 . 天元紀大論篇』에서 "子午해에는 위에 少陰이 나타나고 丑未해에는 위에 太陰이 나타나고 寅申해에는 위에 少陽이 나타나고 卯酉해에는 위에 陽明이 나타나고 辰戌해에는 위에 太陽이 나타나고 巳亥해에는 위에 厥陰이 나타난다"[50]고 하였다. 子午年에는 前半期에 少陰이 司天이어서 熱氣가 주관한다는 뜻이다.

主氣의 運行順序를 보면 五行의 相生原理에 따르고 客氣는 陰陽氣의 多少에 따라 前半期는 陰氣가 成長하고 後半期는 陽이 成長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 厥陰風木

厥陰風木은 六氣의 風과 五行의 木이 結合하여 外顯된 상태가 厥陰이다. 봄이 되면 바람이 일고 싹이 돋아나며[51] 잎이 뻗어나가는데 미약한 陰이 자라나는 형국이다. 韓東錫은 厥陰을 두고 "物이 生하려고는 하지만 力不及이어서 生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生長하는 陰의 氣運은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陽의 氣運이 發動하는 가운데 일어나므로 現象과 內容이 다르게 作用하는데 그것이 厥陰風木이다.

厥陰은 天氣의 風寒暑濕燥火의 '風'과 地氣인 五行의 '木'이 自然과 人體에 作用한 變化이며 厥陰은 標가 되고 風은 本氣가 되며, 體用으로 보면 厥陰은 用이 되고 風은 體가 된다

節氣로는 大寒, 立春, 雨水, 驚蟄에 해당한다.

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

50)『素問 . 天元紀大論篇』"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辰戌之歲 上見太陽 巳亥之歲 上見厥陰"

51) 韓東錫「宇宙變化의 原理」p153 "木氣에는 動하는 象이 있으므로 風木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2) 少陰君火

韓東錫은 君火를 '少陰 속에서 자란 實力 있는 火'[52]라고 하였다. 즉 少陰君火는 陰이 한층 자라게 됨에 따라 天氣로서의 火(熱)는 한층 강해지고 여름이 되어 草木의 成長은 더 茂盛해진 상태의 主動力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火인 것이다.

少陰君火에서 君火는 天氣인 寒暑濕燥風火의 '暑'이고, 暑는 五行의 '火'이며 少陰은 두 氣運의 作用으로 나타나는 自然과 人體의 變化作用을 말한다. 少陰은 標가 되고 君火는 本氣가 되며 體用으로 말하면 少陰은 用이 되고 君火는 體가 된다.

節氣로는 春分, 淸明, 穀雨, 立夏에 해당된다.

(3) 太陰濕土

太는 크다는 뜻으로 지극히 작으면서도 지극히 큰 것을 이르는데 가장 많이 자란 陰, 老陰이란 뜻으로 쓰인다. 韓東錫은 "濕土라고 한 것은 본래 水와 火의 중간점이다. 조금만 더 凝固하면 水의 형체를 나타내지만 반면으로 조금만 더 分裂하면 火의 象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陰이 더 이상 成長을 멈추고 陽으로 轉換하려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太陰은 天氣의 寒暑濕燥風火의 '濕'과 地氣인 五行의 '土'의 作用이 發顯된 모습이며 太陰은 標가 되고 濕土는 本이 되며, 體用으로 보면 太陰은 用이되고 濕土는 體가 된다.

節氣로는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四節氣에 해당한다.

(4) 少陽相火

少란 젊다는 뜻이며 아직은 陽이 始作하는 段階이므로 少陽이라 한다. 韓東錫은 "相火란 君火를 도와주는 火란 뜻이다. 君火는 發散을 위주로 하는 火인즉 綜合만이 그의 보조가 되는 것이므로 天道는 相火로써 君火의 보조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53]

---

52) 韓東錫「宇宙變化의 原理」p153
53)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156

라고 하여 임금을 補助하는 정승에 비유하여 相火를 설명하였다.

相火는 天氣의 寒暑濕燥風火의 '火'와 地氣인 五行의 '火'의 作用이 합쳐진 것이며 少陽은 두 氣運의 作用으로 나타나는 自然과 人體의 變化作用을 나타낸 것이고 少陽은 標가 되고 火는 本이 되며, 少陽은 用이 되고 火는 體가 된다.

節氣로는 小滿, 芒種, 夏至, 小暑에 해당한다.

(5) 陽明燥金

韓東錫은 '陽明이란 日月이 합하여 明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太陽은 三陽이고 少陽은 一陽인데 두 개의 陽이 합하면 明을 이루는 법이다'[54]라고 하여 陽明을 說明하였다. 天地의 氣는 濕이 收斂되기 始作하면서 燥氣가 生하게 되는데 이때가 가을이다. 맑고 높은 가을하늘은 陽明燥金이 生하기 때문이며, 收斂하는 氣의 作用은 精神世界에도 作用하여 私慾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陽明은 天氣의 寒暑濕燥風火의 '燥'와 地氣인 五行의 '金'이 結合하여 陽明이 外顯된 것으로 陽明은 標가 되고 燥는 本氣가 되며, 體用으로 보면 陽明은 用이 되고 燥는 體가 된다.

節氣로는 秋分, 寒露, 霜降, 立冬에 해당한다.

(6) 太陽寒水

太陽이란 아주 큰 陽, 또는 老陽을 의미한다. 現象面에서는 가장 큰 陽으로 보이지만 本體面에서 보면 가장 작은 陽이다[55]. 그러나 水의 分裂이 최대에 이른 것이어서 陽氣가 深部로 伏藏되어 實力面에서는 가장 큰 陽이라 할 수 있다. 寒水란 現象으로는 太陽으로 보이지만 그 本은 寒을 뜻한다. 天氣의 寒暑濕燥風火의 '寒'과 地氣인 五行의 '水'가 結合되어 自然과 人體에 나타나는 變化이며, 太陽은 標가되고 寒은 本이며, 太陽은 用이되고 寒은 體가 된다.

節氣로는 小雪, 大雪, 冬至, 小寒에 해당한다.

---

54)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 156
55)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157

第三節　十二經脈 名稱에 대한 理解

1. 正名思想

學問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56]. 醫學을 공부하는 이라면 먼저 槪念을 明確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事物의 意味가 分明해지고 充實해지기 때문이다. 物象에서 抽象한 槪念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은 對象을 把握하고 認知하여 判斷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름은 名과 實이 相符하게 붙여져야 하며 東洋의 學者들은 正名을 哲學의 基本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공자는 宰相이 되면 正名부터 하겠다고 했고 묵자는 그 意味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韓東錫은「宇宙變化의 原理」에서 正名思想의 바탕위에서 五運六氣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氣'字를 說明하면서 모든 文字는 取象에서 비롯한다는 전제를 두었다. "'氣'字를 取象할 때에 從气從米 한 것이니 '气'字의 뜻은 구름기운이라는 字다. 구름기운이란 말은 아직 구름으로 엉키기 전의 象을 의미하는 것이다. '米'字의 뜻은 四通八達을 의미하는 것인즉 '氣'字는 이 두 字를 합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綜合의 始初를 이루는 未土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풀이했다.

'正名'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孔子의 核心的 思想이다. 孔子는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名과 實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名과 實이 일치된다는 認識論은 原理와 實踐이 일치되어야 함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

56)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p48 "學問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槪念을 定立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論理가 바로 서고 意味가 分明해지며 知識의 統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槪念은 事物의 名分과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데 意味가 있다"

經絡의 이름은 그 의미와 내용들을 함축해서 調合한 것이므로 十二經脈의 名稱을 分析하면 經絡氣化의 핵심적인 내용을 理解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運用의 原理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經絡名稱의 分析은 鍼灸의 臨床的 運用에서 빠질 수 없는 精髓라 할 수 있다.

그래서 經絡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經絡의 名稱에 대한 意味를 분명히 해야 統一된 意味와 內容을 認識할 수 있고 나아가 臨床에 쉽고 單純明瞭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前提 아래 수년간 臨床에 活用한 結果 論理가 간결하면서도 效果 또한 더욱 確信이 서게 되었다. 古典에 나와 있는 論據들이 위의 前提들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2. 經脈의 構成

『靈樞 . 經水篇』에 "經脈 열둘은 十二經水에 符合하고 안으로 五臟六腑에 이어 진다"[57]고하여 經脈이 五臟六腑의 氣血多少 虛實을 반영하는 機能을 함을 밝히고 있다. 밖으로는 六氣와 通하고 안으로는 臟腑와 이어져서 臟腑의 生理, 病理現象을 반영할 뿐 아니라 六氣, 六淫의 상태가 반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經絡은 五運과 六氣的 結合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더 하여서 經氣가 흘러가는 部位에 대한 要素가 結合되면서 현재의 經絡 名稱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最初의 記錄에서 발견된 經脈 名稱이 현재의 모습으로 變化하기까지는 몇 번의 變化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通用되고 있는 經脈 名稱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모든 經脈의 名稱은 모두 세 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名稱의 맨 처음에 '手' '足'이라고 表記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는 '太陰' '陽明' '少陰' '太陽' '厥陰' '少陽' 등 三陰三陽이, 그다음에 '肺' '大腸' '胃' '脾' 등... 해당 臟腑를 나타내는데 이

57)『靈樞 經水篇』"經脈十二者 外合于十二經水 而內屬于五臟六腑"

세 가지 要素가 結合되어 하나의 經脈을 構成하고 있다.

< 表 3 > 經脈의 構成要素

* 예) 手 太陰 肺 經	
手 + 太陰 + 肺	⇒ 部位 + 六氣 + 五行(臟腑)

다시 말해서 처음에 '手'라고 明記되어 있는 것은 손으로 흐르는 部位를 指稱함이고, '太陰'은 六氣 중에 太陰濕土를 指稱하는 것이며, '肺'는 앞의 두 가지 構成要素를 갖추고 있는 臟腑가 "肺"라는 것을 가리킨다.

'手陽明大腸經'은 손으로 흐르는 陽明氣運은 '大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며 大腸經絡의 經絡反應은 六氣中 陽明의 性質과 胃腸의 病理現象이 관련이 깊다.

脾臟과 肺, 大腸과 胃는 太陰經과 陽明經으로 燥, 濕을 主管하는 經絡이며 인체의 전면을 지배하면서 陰陽均衡을 이루고 있다.

가. 部位

手足은 經脈의 陰陽的 屬性과 관련이 깊다. 手는 陽的인 속성에 가깝고 足은 陰的 屬性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同一한 氣運이 臟腑에서 手足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東洋醫學의 基本哲學인 陰陽적 속성이 반영된 結果라 이해할 수 있다.

大腸과 胃는 陽明燥金으로 氣運은 같으나 經絡의 上下陰陽이 달라서 上焦는 濕熱과 關聯이 있고 下焦는 濕冷이어서 각각 그 役割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진다. 太陰濕土의 脾臟과 肺도 臟腑의 屬性상 陽에 속하는 肺와 陰的인 脾臟이 太陰濕을 주관하는 作用은 같으나 上下陽陰으로 나뉘는 것은 그 作用에 차이가 있으며 病理面에서 나타나는 部位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굴 浮腫은 太陰氣運의 機能失調와 관련이 있으나 上焦에 있으므로 주로 肺의 機能異常과 관련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 氣運

經脈을 構成하고 있는 두 번째 要素는 氣運이다. 太陰 陽明은 燥氣를 조절하는 作用이 있는데 신봉철은 講論集「사암침법」에서 '통통하고 熱 있는 사람에게 手陽明大腸經 補法을 使用하는 것은 濕熱을 除去하기 위함이고 통통하고 冷한 사람에게 胃補法을 使用하는 것은 濕을 제거하여 乾燥하게 하기 위한 것'[58]라고 하였다. 또 '六氣도 火이고 五行도 火인 心補法은 찬 사람에게 쓰는 것'[59]이라 했으며 '五行이 火氣이고 六氣가 水氣인 膀胱補法은 熱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君火와 寒水의 六氣的 作用을 강조한 것으로 經脈의 六氣가 臟腑의 生理, 病理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濕症門」에서 '生冷飮食物로 인하여 誘致된 內鬱性濕證에 脾補法인 少府 大都 補 大敦 隱白 瀉'[60]를 治法한 것은 太陰濕土인 脾臟 經氣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內經』의 '濕生脾土'에 근거한 것이다.

또『鍼灸經驗方』에서 "濕腫으로 붓는 것은 모두 脾에 속한다"[61]는 구절과 『鍼灸大成. 足太陰脾經穴主治篇』에 "中央生濕 濕生土"[62]라 한 것 모두 脾臟이 太陰濕土와 관련됨을 밝힌 것이다.

또『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燥症門」에는 '全身의 皮膚가 乾燥하여 白屑을 일으키고 심하면 坼裂되며 煩渴, 秘結하는 證에 肺補法인 太淵 太白 補 少府 魚際 瀉하여 治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濕을 보충하여 촉촉이 적셔주기 위함이고 '殺火官而安金 養母土而補肺'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太陰經과 陽明經은 脾臟과 肺, 大腸과 胃가 濕, 燥을 주관하는 經絡으로써 濕이 넘치면 燥氣가 조절하고 燥氣가 지나치면 濕을 補充함으로써 陰陽均衡을 조절하고 있다.

---

58) 신봉철 정하주 엮음. 사암침법. (2007년) 온배움터 강론집 p23, 28
59) 신봉철 정하주 엮음. 사암침법. (2007년) 온배움터 강론집 p37, 40
60)『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濕症門」中濕(內傷)方
61) 허임 저. 鍼灸經驗方.針灸經驗方序 .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諸濕腫滿 皆屬脾"
62) 李炳國 飜譯. 鍼灸大成. 原著 楊繼洲. 침코리아 p544

『素問 四時刺逆從論篇』에는 三陰과 三陽의 虛實에서 오는 病에 대해 “厥陰이 넉넉함이 있으면 陰痺를 앓고, 厥陰이 부족하면 熱痺를 앓으며, 厥陰이 滑하면 狐疝風을 앓고, 厥陰이 濇하면 아랫배에 氣가 積聚한다. 少陰이 넉넉함이 있으면 살가죽에 痲痹感이 오고 隱軫을 앓으며 不足함이 있으면 肺痺를 앓고 滑하면 肺風疝을 앓고 濇하면 積聚와 溲血이 있다. 太陰이 넉넉함이 있으면 肉痺와 寒中을 앓고, 不足함이 있으면 脾痺를 앓으며, 滑하면 脾風疝을 앓고 濇하면 心과 腹에 積聚하여 때때로 脹滿한다. 陽明이 넉넉함이 있으면 脈痺를 앓아 몸에서 때때로 熱이 나고, 不足함이 있으면 心痺를 앓고, 滑하면 心風疝을 앓고, 濇하면 積聚病을 앓고, 때때로 잘 놀란다...”[63]고 하여 陰陽氣의 有餘不足과 疾病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疾病의 面面을 살펴보면(아래표4 참조) 三陽三陰氣와 中氣의 作用에 의한 疾病關係임을 알 수 있다.

< 表 4 > 六氣의 病理現象

	有餘	不足	滑	濇
厥陰	陰痺	熱痺	狐疝風	少腹積氣
少陰	皮痺隱軫	肺痺	肺風疝	積溲血
太陰	肉痺寒中	脾痺	脾風疝	積心腹時滿
少陽	筋痺脇滿	肝痺	肝風疝	積 時筋急 目痛
陽明	脈痺身時熱	心痺	心風疝	積時善驚
太陽	骨痺身重	腎痺	腎風疝	積 善時巔疾

63)『素問 四時刺逆從論篇』“陰陽有餘病陰痺 不足病生熱痺 滑則病狐疝風 濇則病少腹積氣 少陰有餘病皮痺隱軫 不足病肺痺 滑則病肺風疝 濇則病積溲血 太陰有餘病肉痺寒中 不足病脾痺 滑則病脾風疝 濇則病積心腹時滿... 陽明有餘病脈痺 身時熱 不足病心痺 滑則病心風疝 濇則病積時善驚...”

다. 臟腑

經脈名稱의 세 번째 條項은 그 經脈을 主管하는 해당 臟腑를 지칭하는 말이다.

手厥陰心包經은 손으로 흐르는 厥陰氣運을 心包가 主管하고 足厥陰肝經은 발로 흐르는 厥陰氣運을 肝이 主管함을 밝히고 있다. 手少陽三焦經은 손으로 흐르는 少陽氣運을 三焦가 主管하고 足少陽膽經은 발로 흐르는 少陽氣運을 膽이 주관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厥陰氣運의 치우침과 관련한 증상은 心包와 肝經脈에 반영되고 少陽氣運의 恒常性은 三焦와 膽經脈에 반영되어 經脈間의 陰陽均衡을 조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手太陽小腸經은 손으로 흐르는 太陽氣運을 小腸이 主管하고 있으며 足太陽膀胱經은 발로 흐르는 太陽氣運은 膀胱이라는 臟腑와 관련이 깊음을 나타낸다. 手少陰心經은 손으로 흐르는 少陰氣運을 心臟이 주관하고 足少陰腎經은 발로 흐르는 少陰氣運을 腎臟이 주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太陽과 少陰氣運은 각각 寒熱로 대비되는 氣運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혀주는 作用을 通해 經脈間의 均衡을 조절하고 있다.

정리하면 經脈에서 流注部位와 六氣는 該當臟腑의 前提條件이 되고, 세 가지 要素가 結合됨으로써 經脈으로 發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經絡氣化을 이해할 때에 六氣의 特性, 즉 三陰, 三陽을 論하는 것 外에 五行的 要素, 즉 臟腑의 生理와 病理를 理解하는 것도 중요하다.

十二經脈의 名稱을 위와 같이 分析하면 아래와 같은(表 5) 결과가 나온다.

< 表 5 > 經脈構成과 特徵的 要素

經絡名稱	流注部位 (기시점or종지점)	六氣 分類	五行 分類	陰陽	備考
手太陰肺經	手	太陰濕	金	上(陽)	
足太陰脾經	足	太陰濕	土	下(陰)	五行 六氣 同氣(土)
手陽明大腸經	手	陽明燥	金	上(陽)	五行 六氣 同氣(金)
足陽明胃經	足	陽明燥	土	下(陰)	
手少陰心經	手	少陰火	火	上(陽)	五行 六氣 同氣(火)
足少陰腎經	足	少陰火	水	下(陰)	
手太陽小腸經	手	太陽寒	火	上(陽)	
足太陽肪胱經	足	太陽寒	水	下(陰)	五行 六氣 同氣(水)
手厥陰心包經	手	厥陰風	火	上(陽)	
足厥陰肝經	足	厥陰風	木	下(陰)	五行 六氣 同氣(木)
手少陽三焦經	手	少陽相火	火	上(陽)	
足少陽膽經	足	少陽相火	木	下(陰)	

※ 同一한 氣運의 臟腑가 上下陰陽으로 나뉘어진 것은 臟腑의 陰陽的 屬性을 반영한 것이며 生理, 病理에 영향을 미친다.

第四節　經絡氣化의 原理

1. 經絡의 機能

가. 陰陽 調和

經絡은 臟腑의 氣血을 運行시켜서 身體를 滋養하며 身體 內外를 疏通하여[64] 陰陽調整을 하며 病邪를 물리치는 곳이다.『靈樞 . 本臟篇』에서 經脈의 機能을 "人體의 氣血精神이라는 것은 生命活動을 유지하는 것이다. 經脈은 血과 氣를 運行하여 人體의 陰陽調和를 이루고 또한 筋骨을 濡潤하여 關節의 作用을 用役하게 한다"[65]라고 하였고,『靈樞 . 根結篇』에서도 "針法의 要訣은 陰陽을 調和시킬 줄 아는데 있다"[66]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經脈의 陰陽調整作用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臨床에서 가장 먼저 診斷되어야 할 것이 陰陽의 문제인데 陰陽이 決定되지 않고 治法을 論할 수는 없다.

나. 病邪에 對抗하고 그 症候를 反映

經絡은 正常狀態에서는 均衡을 維持하여 作用하고, 病變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病邪가 侵入하는 곳이 되기도 하여 病候를 反映하므로 病의 反應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氣血이 失調되어 疾病이 걸렸을 때 反應이 나타나는 곳이고, 經絡을 자극함으로써 氣血陰陽을 調節하여 疾病을 治療할 수 있는 곳이 된다.

『靈樞 . 經別篇』에서 "經絡은 사람이 生存하는 手段이 되고, 病이 형성되는 原因이 되고, 患者를 治療하는 手段이 된다"고 하여 각 經脈에 分布된 穴位는 所屬經脈의 經氣가 流注하는 예민한 部位로 經脈에 異狀 病變이 발생하면 그 經脈에 소속된 穴

---

64)『註解十四經發揮』취암서원.이성열 옮김. 手足陰陽流注篇

65)『靈樞 本臟篇』"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于性命者也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66)『靈樞 根結篇』"用鍼之要 在于 知調陰與陽"

位를 자극하여 經氣의 太過. 不足을 調節함으로서 經脈에 생긴 疾病을 治療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밝혔다.

다. 治療上 傳導作用

鍼灸施術時에 經穴에 자극을 加하면 感應이 일어나 體表에서 裏의 臟腑에까지 傳導되어서 氣穴을 疏通시키고 虛實이 조절되어 病을 물리친다.

『素問 . 臟氣法時論篇』"肝이 아픈 자는 양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면서 少腹이 당기며... 肺에 病이 있는 자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기가 逆하고 어깨와 등에 痛症이 있고 ... "[67]라고 한 것은 內臟의 病이 體表로 영향을 미침을 말하는 것이므로 體表의 經穴을 자극하면 臟腑의 氣血 虛實을 조절하여 治療와 豫防의 기능을 하게 된다.

2. 經絡氣化

『靈樞 決氣篇』에서 氣를 "上焦가 열려서 五穀의 精微를 散布하면 皮膚를 따뜻하게 하고 身體에 充實하여 毛髮을 潤澤하게 하는데 마치 안개와 이슬이 적시는 것과 같은 이것을 일러 氣라 한다"[68]고 했다. 氣는 氣 血 津 液 精 脈을 포함하는 것으로 人體의 生命을 構成하는 바탕이며 相互化生하고 轉化하면서 氣化過程을 거친다.

氣化의 字義을 살펴보면 '氣'는 人體內에 存在하는 各種의 氣를 가리키고 '化'는 運動과 變化 轉化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氣化'라 함은 體內 各種의 氣가 運動, 變化, 轉化하는 動態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9].

古代醫家들은 모든 事物의 運動方式을 陰陽의 統一運動에 의해 설명하고 있는데 事物은 陰陽의 運動으로 不斷히 發展하고 變化, 轉化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過程中에 一定한 形態를 갖추지 않은 段階에 있는 것을 氣化段階로 인식하였다.

---

67)『素問 臟氣法時論篇』"肝病者 兩脅下痛引少腹... 肺病者 喘欬逆氣 肩背痛..."
68)『靈樞 決氣篇』"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 澤毛 若霧露之漑是謂氣"
69)『臟腑辨證論治』成輔社 p75

『素問』에 '化 謂氣化之元主'라고 밝혀놓은 것으로 보아서 化라는 것은 단순한 變이 아니라 物質과 性質의 變化를 지칭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難經 . 八難篇』에는 "十二經脈은 모두 生氣의 本源과 연결 되어 있다. 이른바 生氣의 本源은 十二經脈의 本源이며 腎間動氣라고 한다"[70]라고 하여 經絡氣化의 根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素問. 陰陽應象大論篇』에 "氣가 精으로 돌아가면 精은 化로 돌아가니... 精이 化하여 氣가 되면"[71]이라고 한 內容과『素問 . 六微旨大論』에 "萬物이 태어남은 調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萬物이 다함은 變化로 말미암는 것이다"[72]라고 것과『素問 . 五常政大論』에 "氣가 中止되면 化가 단절 된다" "氣가 비롯되면 태어나 化하고 氣가 흩어지면 形體가 있고 氣가 완전히 펼쳐지면 蕃盛하게 길러지고 氣가 끝을 마치면 象이 變하는데 이는 하나의 氣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73] 등의 내용은 氣化에 대한 根據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綜合하여 보면 氣化의 원천은 收穀精微이며 氣化란 氣가 變化 轉化 過程을 거쳐 物質과 性質 두 가지 變化過程을 거친 運動樣態를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人體內의 五臟六腑, 四肢百骸, 모든 經絡에는 氣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氣化作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 氣의 昇降出入에 의해 몸의 和平이 유지되고, 氣가 平穩하면 몸도 平安하고 氣가 衰하면 몸이 약해지고 氣가 충만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氣化作用은 生命을 유지하는 根本이 되고 氣化作用으로 人體가 生命을 유지하고 變化에 適應할수 있으며 外邪를 방어하므로 人體作用의 어느 것 하나 氣化作用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 없다.

經絡의 氣化作用은 氣化를 통해 變化한 氣를 四肢百骸, 人體의 구석구석까지 運搬하여 作用하게 하는 氣의 運動方式이다. 안으로 臟腑와 相通하고 밖으로 六氣와 相

---

70)『難經 八難』"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71)『素問 陰陽應象大論篇』"氣歸精 精歸化... 精化爲氣"

72)『素問 六微旨大論篇』"夫物之生 從於化 物之極 由乎變"

73)『素問 五常政大論篇』"氣止則化絶" "氣始而生化 氣散而有形 氣布而蕃育 氣終而象變 其致一也"

應하며 氣化를 거쳐 陰陽調和를 이루어간다.

六氣는 天氣의 陰陽變化로서 形成되며 人體에서는 三陰三陽이 여기에 應하고 六經은 六氣에 應하여 陰陽氣의 多少[74]에 따라 분류되므로 六氣와 六經은 모두 陰陽變化에서 비롯된다.

六經理論의 根據는『素問 . 陰陽離合論』인데,『傷寒論』에서는 六經과 經氣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太陽之氣는 寒, 陽明之氣는 燥, 少陽之氣는 火, 太陰之氣는 濕, 少陰之氣는 熱, 厥陰之氣는 風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해 六經의 病이 寒, 燥, 火, 濕, 熱, 風 등 여러 가지 病症으로 傳變, 傳經된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을 經脈에 適用시켜보면 厥陰經은 風으로, 少陰經은 熱로, 太陰經은 濕으로, 少陽經은 火, 陽明經은 燥, 太陽經은 寒으로 氣化하여 相應한다.

또한 六氣와 六經과의 氣化關係는 標本中氣 理論을 應用하여 天의 六氣와 人體 六經間의 相互關係를 파악 할 수 있는데 標本中氣의 理論은 六經의 發病規律을 體系的으로 분석한 것으로 臨床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 內容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標本中氣

標란 末, 現象의 意味가 있고, 本은 本質, 原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天의 六氣는 三陰三陽의 本이되고, 地의 三陰三陽은 六氣의 標가 된다.

中氣는 陰陽 및 表裏相通關係로 陰陽관계에 의해 氣化의 盛衰를 調節하고 氣機를 調節하여 樞機의 作用을 가지므로 六經의 標本氣化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六氣의 太過 不及은 經氣에 영향을 미쳐서 經絡間의 균형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樞機의 作用을 하는 中氣의 役割은 治療에서 더욱 크다.

『素問 . 六微旨大論篇』에는 "少陽의 위를 火氣가 다스리면 中央에는 厥陰이 나타나

74)『素問 天元紀大論篇』"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 三陰三陽也"

고, 陽明의 위를 燥氣가 다스리면 中央에는 太陰이 나타나고, 太陽의 위를 寒氣가 다스리면 中央에는 少陰이 나타나고, 厥陰의 위를 風氣가 다스리면 中央에는 少陽이 나타나고, 少陰의 위를 熱氣가 다스리면 中央에는 太陽이 나타나고, 太陰의 위를 濕氣가 다스리면 中央에는 陽明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根本이라고 한다"[75]라고 하여 標本中氣에 대한 理論을 論하였다.

이것은 陰陽의 根本이 太極의 變化에 의한 것이므로 中見之氣가 陰陽이 互根하는 原則에서 비롯됨을 밝힌 것이라 여겨진다.

太陽寒水를 中心으로 標本中氣를 살펴보면, 太陽은 標이고 그 本은 寒이며 太陽의 裏인 少陰이 中見之氣가 되며

少陰君火를 中心으로 標本中氣를 살펴보면, 少陰은 標가 되고 그 本은 火이며 少陰의 表인 太陽이 中見之氣가 되며

少陽을 中心으로 標本中氣를 살펴보면 , 少陽은 標가 되고 그 本은 火이며 少陽의 裏인 厥陰은 中見之氣가 되며

厥陰을 中心으로 標本中氣를 살펴보면, 厥陰은 標가 되며 그 本은 風이며 厥陰의 表에 해당하는 少陽이 中見之氣 가 되고

陽明을 中心으로 標本中氣를 살펴보면 陽明은 標가되며 그 本은 燥이며 陽明의 裏인 太陰이 中見之氣가 되고

太陰을 中心으로 標本中氣를 살펴보면 太陰은 標가되며 그 本은 濕이며 太陰의 表인 陽明이 中見之氣가 된다.

中見之氣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六氣의 變化가 極에 이르면 相反되는 氣運으로 轉化하여 中氣가 樞機의 作用을 하기 때문이다. 熱은 寒으로 寒은 熱로 轉化하게 되므로 自然界의 秩序가 相反되는 氣運끼리 조절되어야 自然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素問 . 至眞要大論』에서 "氣有從本者 有從標本者 有不從標本者也"라 하여 氣에는

---

75)『素問 六微旨大論篇』"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所謂本也"

本을 따르는 것이 있고 標本을 따르는 것이 있으며 標本을 따르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였다.

氣有從本者라 함은 六氣는 本氣, 病理에서는 六淫이 主要內用임을 뜻하고 有從標本者는 標와 本을 중요시한 것이며 有不從標本者也는 標本보다 標本과 聯關된 六氣 또는 病理 變化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變化를 중요시한 것이다.

나. 標本同氣

少陽과 太陰은 標와 本이 같은 氣이므로 本을 따라서 化한다[76]. 少陽의 本은 火이고 標는 少陽之氣로서 標本의 陰陽之氣가 같고, 太陰의 本은 濕이고 標는 太陰之氣이므로 標本의 陰陽之氣가 일치하여 그 本을 따라 氣化한다.

그러나 少陽과 太陰이 本을 따라 氣化하기는 하지만 中見之氣와의 關係 또한 病理現象에 反映되므로 中氣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太陰은 濕의 영향으로 轉病되므로 昇淸降濁機能이 失調되면 腹中脹滿, 飮食不下, 嘔吐不痢등의 病症을 나타내는데 陽明燥氣의 不及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中見之氣의 영향 또한 크다고 하겠다. 燥濕相濟하는 作用은 樞機作用을 하는 中氣에 의한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少陽의 火와 厥陰의 風의 관계는 自然界의 대류현상에 보듯이 風은 火氣를 分散調整하는 作用이 있고, 태풍의 경우를 보더라도 火에 의해 그 作用이 강해지므로 상호간에 中氣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 標本異氣

少陰과 太陽은 標와 本이 현격하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標도 따르고 本도 따라서 化한다[77]. 少陰의 本은 火이고 標는 少陰之氣이며 太陽의 本은 寒이고 標는 太陽之氣이므로 標本陰陽이 달라서 標와 本을 따른다. 少陰과 太陽은 中見之氣에 속하고 少

---

76)『素問. 至眞要大論篇』"少陽太陰從本"
77)『素問. 至眞要大論篇』"少陰太陽從本從標"

陰의 氣가 충실하지 않으면 太陽之氣는 寒症을 수반하므로 兩者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中見之氣는 人體의 恒常性을 維持하는 樞機가 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라. 濕從燥火. 風從火化

陽明과 厥陰은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라 化한다[78]. 陽明의 本은 燥이고 標는 陽明之氣이며, 厥陰의 本은 風이고 標는 厥陰之氣인데 陽明의 燥氣는 濕으로 轉化하고 厥陰의 風氣는 熱로 轉化하므로, 陽明은 中氣인 太陰을 따라서 氣化하고 厥陰은 中氣인 少陽을 따라 氣化한다. 陽明과 厥陰은 標와 本을 따르지 않는데 燥氣는 陰氣로 보기 어렵고 風氣는 陽氣으로 보기 어려워 陰陽 어디에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人體의 恒常性 유지가 經絡氣化의 機能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中氣를 따른다.

이상의 理論을 살펴보면 六氣는 本을 따르기도 하고 標本을 따르기도 하며 中氣를 따르기도 한다. 六經의 氣化作用을 이해하면 標·本·中氣를 따라 기화하는 경락의 임상활용 방법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3. 經絡氣化와 病證

經絡에 나타나는 反應은 臟腑의 病理現象과 六淫으로 인한 病理現象이 經絡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臟腑는 自然界 五行의 變化가 반영되고 經絡은 自然界의 六氣的 特性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經絡에 나타나는 經穴反應은 이 두 요소의 結合的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經絡氣化의 原理를 把握하고 臨床에 運用하기 위해서는 五行과 六氣에 대한 正確한 認識이 있어야 하고 經絡이 自然界와 人體가 소통하는 매개체로서의 氣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臨床에 考慮 할 수 있어야 한다.

---

78)『素問. 至眞要大論篇』"陽明厥陰不從標本 從乎中也"

예를 들어 手太陰肺經에 異常이 있다면 우선 臟腑인 肺의 生理的 均衡이 깨어져서 나타는 肺의 病理現象과 天氣로서의 六氣的 特性中 燥, 濕의 病理現象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臟腑病症으로 肺가 脹滿하여 숨찬 症狀과 기침을 하고 缺盆穴 部位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氣가 盛하면 어깨와 등이 아픈 증상등이 나타나고, 經絡病症으로 소리를 못 내거나, 붓거나 목이 乾燥해지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臟腑病과 經絡病에 대한 根據는 內經의『靈樞 . 經脈篇』[79]의 是動病 所生病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하고 있다.

是動과 所生에 대하여 歷代 醫家들의 意見이 紛紛했으나『難經 . 二十二難篇』[80]에 問題提起를 한 "經에서 말한 是動은 '氣'이고 所生病은 '血'이다"라고 한 부분을 氣는 陽病, 血은 陰病이라고 解釋 할 때, 是動病을 經脈病證, 所生病을 臟腑病證으로 理解하고 論述하는 바임을 밝혀둔다.

아래 표(表 6)는『靈樞 . .經脈篇』에서 是動病과 所生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表 6 > 是動病 所生病

臟腑	是動病	所生病
肺臟	肺脹滿, 膨膨해서 기침을 하고, 缺盆痛症이 있고 甚하면 양손을 교차하고 눈이 어두워짐.	咳嗽, 上氣하고 喘渴, 煩心, 胸滿, 臑臂內側痛症, 掌中熱. 實하면 肩背痛 風寒汗出 中風症 小便數而欠, 虛하면 見背痛寒 少氣不足以息 小便色變 卒倒
大腸	齒痛 頸腫	目黃, 口乾 鼽衄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 實하면 經脈이 흐르

79)『靈樞 經脈篇』"是動則病 肺脹滿 膨膨而喘欬 上盆中痛 甚則交兩手而瞀"
80)『難經 二十二難篇』"經言是動者 氣也 所生病者 血也"

		는 곳에서 熱 이 나면서 부어오르고 虛하면 惡寒 寒慄하여 不復.
胃腸	으슬으슬 춥고 떨며 앓는 소리를 내며 하품을 자주하며 얼굴이 검게 변하고 病이 깊으면 사람보기를 불보듯 함. 나무 부딪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心臟이 動悸하며 혼자 창문을 닫고 지내며 심하면 上高而歌, 棄衣而走 腹脹.	狂症 瘧疾 溫淫 汗出 鼽衄 口渴 脣胗 頸腫 喉痺 腹部水腫 膝臏腫痛 젖가슴부터 胃經이 흐르는 부위에 痛症이 있고 足中指不用. 實하면 몸의 前方이 모두 發熱하고 邪氣가 有餘하면 消穀善飢 小便色黃 氣不足則身以前皆寒慄 胃中寒則脹滿.
脾臟	舌本强 食則嘔 胃腕痛 腹脹 善噫 방귀를 뀌면 시원해지고 신체가 무거운 증상	舌本痛 身體를 움직일 수 없고 飮食이 내려가지 않고 煩心下急痛 寒虐 溏瘕泄 水閉 黃疸 不能臥. 억지로 서있으면 股膝內痿 足大指不用
心臟	嗌乾 心痛 渴症	目黃 脅痛 臑臂內後廉痛 掌中熱痛
小腸	嗌痛 頷腫 목을 못 돌리고 어깨가 빠질듯하고 上膊部가 빠질 듯한 증상	耳聾 目黃 頰腫 頸頷肩臑肘臂外廉痛
膀胱	衝頭痛 눈이 빠질 것 같고 목이 빠질듯하고 脊痛 허리가 끊어질 듯 하고 股關節을 구부릴수 없고 오금이 결박된 듯하고 장딴지가 터질듯한 症狀.	痔疾 瘧疾 狂症 癲疾 頭顙頂痛 目黃 淚出 鼽衄 項背腰尻膕腨脚痛 小趾不用
腎臟	배가 고파도 食慾이 없고 얼굴이	口熱 舌乾 咽腫 上氣 嗌乾及痛

	검어 진흙과 같고 기침할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숨을 헐떡거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텅빈 것과 같은 症狀	煩心 心痛 黃疸 腸澼 脊臀股內後廉痛 痿闕 嗜臥 足心熱痛
心包	手心熱 臂肘攣急 腋腫 甚하면 胸脇部가 결리면서 답답해지다가 가슴속이 울렁거리면서 心中이 憺憺하다가 大動하고 面赤 目黃 喜笑不休	煩心 心痛 掌中熱
三焦	耳聾 渾渾焞焞 嗌腫 喉痺	汗出 目銳眥痛 煩痛 耳後肩臑肘臂 小指次指不用
膽	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하면 얼굴에 때가 끼이면서 身體에 潤氣가 없고 足部 外側에 熱	頭痛 頷痛 目銳眥痛 缺盆中 腫痛 液下痛 馬刀俠癭 汗出 振寒 瘧 胸脇肋髀膝外에서 脛絶骨外踝前까지 모든 關節이 아프고 小指次指不能
肝臟	구부렸다가 펼 수 없는 腰痛, 丈夫는 癪疝症 부인은 小腹腫. 심하면 嗌乾, 안색이 지저분하고 奪色.	胸滿 嘔逆 飧泄 孤疝 遺溺 閉癃

第五節　經絡氣化의 臨床的 運用 方法

五臟과 六腑經絡의 三陰三陽之氣의 認識을 通하여 陰經絡과 陽經絡의 相互關係를 理解하는 것은 經絡을 臨床에 適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陰經絡은 五臟에 배속되며 水氣가 오르면서 上昇, 分化, 陽化하는 작용을 하고 陽經絡은 六腑에 配屬되어 火氣가 내려오면서 下降, 陰化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우선 陰, 陽의 經絡의 流注와 그 作用에 근거하여 五運과 六氣의 特性을 中心으로 臨床運用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經絡의 運用 原理

經絡系統은 五臟六腑와 密接하게 關聯이 있어서 全身을 運行하면서 生理, 病理와 疾病의 豫防과 治療面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經絡은 氣와 血을 運行하여 人體의 陰陽을 조절하고 筋骨을 滋養하고 關節의 作用을 용이하게 한다. 氣血의 運行通路로써 人體를 縱橫으로 交叉하여 體內와 體外로 分布하면서 正常的인 運行을 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病邪에 對抗하고 그 症候가 經絡에 반영된다.『靈樞 . 邪客篇』에 "肺나 心臟에 邪氣가 있으면 그 영향은 兩腋窩에 나타나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內臟에 病變이 있으면 그와 相應하는 經脈의 循行부위에 여러 가지 症狀과 體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人體에는 十四經脈이 있는데 支配領域에 따라 經脈을 分類하면 크게는 前面, 後面, 側面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人體의 全面部를 흐르는 네 개의 經絡은 太陰經과 表裏關係에 있는 陽明經이 拮抗作用을 하고 後面部 네 개의 經絡은 少陰經과 太陽經이 拮抗作用을 하면서 陰陽을 調整하고 側面部를 흐르는 네 개의 經絡은 厥陰經과 少陽經이 水昇火降을 주도하고 있다.

太陰과 陽明은 燥濕相濟하는 機能이 있고 少陰과 陽明은 寒熱을 調節하며 厥陰과 少陽은 風과 火가 相互 相生하는 작용을 하면서 拮抗作用을 한다.

그러므로 經絡을 活用한 臨床에서는 人體를 支配하는 領域과 六氣的 特徵에 따른 陰陽經絡의 拮抗作用, 즉 陰陽均衡은 配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 經絡의 氣化作用은 陰經絡 陽經絡의 均衡에 의해 維持되므로 陰陽經絡의 特徵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經氣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經絡循環의 法則이며 이것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아서 陰陽이 따로 인 것처럼 보이나 實은 하나의 氣의 흐름에 불과하다. 또한 經絡名稱에 表記된 六氣의 性質은 病因의 性質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定性에 따른 太過不及은 反對되는 氣運과 相互 연관이 있다.

2. 陰陽調節에 따른 運用

『素問 . 六微旨大論篇』標本中見理論에서 살펴보았듯이 陰經에서 標는 陰(厥陰、少陰、太陰)이지만 本은 陽(風、君火、濕)이다. 六氣의 特性에 따라 三陰經의 本氣인 風、君火、濕의 氣는 陽性의 氣運으로 下에서 上으로 上升하고, 三陽經의 本氣인 寒水、燥金、相火의 氣는 陰性의 氣運으로 上에서 下로 下降하는 循環經路이다.

따라서 陰經은 오르고 陽經은 내리는 作用을 通하여 六腑는 陰的인 生理機能을 發顯하는 반면에 五臟은 陽的인 生理機能을 發顯함을 알 수 있다. 즉 臟은 陽氣를 끌어올리는 作用을 通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腑는 陰的인 作用을 通하여 陰氣를 끌어내려서 몸을 식혀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陰經의 陽的인 生理機能이 主症인지 陽經의 陰的인 生理機能이 主證인지를 살펴서 陰陽經絡을 먼저 選經하는 것이 중요하다.

『難經 . 五十一難』에서는 “病이 나서 찬 것을 원하면서 사람을 보길 원하면 病이 六腑에 있는 것이고, 病이 나서 따뜻한 것을 원하면서 사람을 보길 싫어하면 病이 五臟에 있다. 그 이유는 六腑는 陽이니 陽病에 찬 것을 원하고 또한 사람이 움직이

는 것을 보길 願하며, 五臟은 陰이니 陰病은 따뜻한 것을 願하고 사람의 소리 듣기 싫어하므로 臟腑의 病을 각각 區分해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五臟에 속하는 陰經의 經氣는 陽性으로 대체로 陰虛한 증상을 보이나 陽氣가 低下되면 水昇이 불리하여 身冷하고, 六腑에 속하는 陽經의 經氣는 陰性으로 대체로 陽虛한 症狀을 보이나 陰氣가 虛하면 火降이 不利하여 發熱, 逆氣하는 症候가 나타난다. 그 結果 陰經絡은 寒邪가 심각한 病症이며 陽經絡은 熱邪가 심각한 病症이 된다. 이로써 陰,陽經絡의 特性을 알 수가 있고 그 作用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陽氣는 가벼워서 上向하는 特性이 있으며 陰氣는 무거워서 下向하는 特性이 있으므로 陰陽經絡特性이 人體에 作用할 때도 上向하는 陰經과 下向하는 陽經의 流注가 이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治療의 基本原理는 陰性의 陽經異常은 陽經絡으로 조절하고 陽性의 陰經異常은 陰經絡을 조절하는 것이 原則이나 陰陽經氣의 太過 不及의 심각함에 따라서 相合하는 經氣를 取穴 할 수도 있다.

3. 五運六氣 特性의 活用

經脈反應은 陰陽特性에 따른 것 外에 五運六氣의 結合的 要素 또한 나타나는데 五行으로 대비되는 臟腑病證과 六氣로 대비되는 經絡病證이 반영된다.

예를 들면 '手太陰肺經'의 경우 五行的 性質의 반영으로서 肺의 生理에 逆行하는 증상 즉, 臟腑病證인 咳嗽, 上氣, 喘喝, 煩心, 胸滿 팔 內側이 아프며 손바닥에 熱이 나고 肩背痛, 風寒汗出, 中風, 小便을 자주보면서 量이 적고, 寒冷하고, 숨쉬기가 充分하지않고, 小便色이 變하는등의 증상과[81], 六氣(太陰)로 대비되는 經絡病證인 肺脹滿, 喘息.咳嗽, 缺盆穴 痛症, 심하면 胸部를 누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하는

81)『靈樞 經脈篇』"所生病者 欬 上氣 喘喝 煩心 胸滿 臑臂內前廉痛厥 掌中熱氣盛有餘 則肩背痛 風寒汗出 中風 小便數而欠 氣虛 則肩背痛寒 少氣不足而息 尿色變"

등의 증상[82]이 나타나기도 한다.

肺經絡의 病變이 있어서 臨床에 活用할 때 臟腑病이 主症인 경우에는 背輸穴과 五行穴(木火土金水穴)을, 經絡病證이 主症일 경우에는 五輸穴(井滎輸經合穴)과 그 經脈의 穴을 중심으로 選穴을 한다.

五輸穴은 臟腑의 氣循環이 특별히 잘 나타나는 곳이므로, 臟腑의 病證이 肺에 있을 경우에는 五輸穴 중에서 五行인 金穴을 取穴하고 肝에 病邪가 있을 때에는 木穴을 取穴하며 腎臟은 水穴, 心臟은 火穴, 脾臟은 土穴을 取穴한다. 즉 모든 經絡의 木穴은 肝으로 相通하며 火穴은 心臟과, 土 穴은 脾臟, 金穴은 肺, 水穴은 腎臟과 相通하는 穴位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標本中氣理論에 따르면 氣化하는 經氣가 다르므로 取穴時에 고려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太陰氣運異常이 主症이면 濕을 따라 氣化하므로 濕을 제거하는 穴을 취한다. 厥陰氣運異常이 主症이라면 中氣를 따라 氣化하므로 少陽經을 取穴해야 마땅하고 太陽氣運異常은 標本을 따르므로 太陽經과 寒을 제거하는 穴을 취한다.

4. 五輸穴

十二經脈에서 肘膝關節 이하 각각 다섯 개 중요한 輸穴이 있는데, 井, 滎, 輸, 經, 合穴이라 하고 五輸라 부른다. 五輸穴의 特徵은 作用은 크고, 效果가 높으며, 主治의 規則性이 있다는 것이다. 그 規則性이란 첫째, 五臟과 相通하는 穴位로서 臟腑를 直接的으로 治療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 六淫의 特徵에 따른 主治穴이 있어서 효과를 上昇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陽經과 陰經의 五行은 각각 差異가 있는데 陰經絡은 木火土金水로 흐르고, 陽經絡은 金水木火土로 흐르는데 陽經과 陰經은 五輸穴이 天干合으로 이루어져 있다.

陰經과 陽經의 五輸穴은 河圖의 相生原理에 근거한 것인데 陰經은 井穴이 乙木,

---

82)『靈樞 經脈篇』"是動病者 肺脹滿 膨膨而喘欬 上盆中痛 甚則交兩手而瞀"

滎穴이 丁火, 腧穴이 己土, 經穴이 辛金, 合穴에 癸水로 配合하고, 陽經은 井穴이 庚金, 滎穴이 壬水, 腧穴이 甲木, 經穴이 病火, 合穴은 戊土로 配合이 되어져 있다. 陰陽經絡은 또 井穴이 乙庚相合化金, 滎穴이 丁壬相合化木, 腧穴이 甲己相合化土, 經穴이 丙辛相合化水, 合穴이 戊癸相合化火로 相合하는데 이는 洛書의 相剋原理에 따른 것이다.(아래 表 7 참고)

< 表 7 > 陰·陽經의 五輸穴

五輸穴	陰 經			陽 經		相合 五行
井	乙	木 ↓ 生		金 ↓ 生	庚	金
滎	丁	火 ↓ 生		水 ↓ 生	壬	木
輸	己	土 ↓ 生	<---克	木 ↓ 生	甲	土
經	辛	金 ↓ 生		火 ↓ 生	丙	水
合	癸	水 ↓ 生		土 ↓ 生	戊	火

※ 오수혈은 흐름을 나타내므로 腧를 輸로 표기함.

五輸穴에 대하여는『靈樞 . 九針二原篇』에서 “經氣가 솟아오르는 곳은 井穴에 해당하고 세차게 흐르는 곳은 滎穴에 해당하고 모였다가 흐르는 곳은 腧穴에 해당하고 循行하는 곳은 經穴에 해당하고 들어가는 곳은 合穴에 해당한다”[83]하여 氣血흐름을

83)『靈樞 九針二原篇』“所出爲井 所溜爲滎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강물에 비유하여 五輸穴을 說明하였고

『難經 六十五難』에서는 "經脈之氣가 나오는 穴을 井穴이라 하고 ... 들어가는 穴을 合穴"[84]이라 하여 해가 떠오르는 동쪽과 萬物이 生하는 몸과 같은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穴을 井穴이라 하고 추운 北쪽에 陽氣가 潛伏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녀서 들어가는 穴을 合穴이라고 한다는 論理를 提示하였는데 이는 井穴이 木과 같고 合穴이 水와 類比되는 理由를 說明한 것이다. 그러므로 木火土金水 五行은 五臟과 相通하여 五輸穴이 臟腑의 主治穴이 되는 근거가 된다.

六淫과 관련한 五輸穴의 主治方向과 관련하여『難經 . 六十八難篇』에서는 井滎輸經合 主治에 대하여 "井穴은 心胸以下의 痞積脹滿을 治療하고 滎穴은 全身의 熱病을, 輸穴은 身體困重과 關節疼痛, 經穴은 氣喘咳嗽와 惡寒發熱, 合穴은 正氣厥逆과 津液外泄을 治療한다"라고 하였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井穴은 心下滿을 主治하는데 井木穴은 肝의 性質과 유사하여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鬱結케하여 반드시 痞滿한 증상이 나타나고, 滎穴은 滎火穴로 心臟과 유사하여 心의 主血脈機能이 失調되고 君火의 作用이 원활하지 않으면 外邪가 侵入했을 때 防禦하기 위하여 熱을 發生시키고, 輸穴은 輸土穴로서 脾臟의 性質을 대변하므로 脾主運化, 調濕하는 機能이 실조되면 濕寒邪로 인하여 身體困重, 關節疼痛이 발생한다. 또 經穴은 經金穴로서 肺의 性質과 유사한데 肺는 肺主氣, 司呼吸作用과 皮膚를 관장하고 體溫調節을 하는 臟腑이므로 肺의 이러한 生理機能이 실조되면 邪氣를 防禦하지 못해 體溫調節機能이 실조되어 寒熱이 발생하고 自然良能作用에 의해 咳嗽가 발생한다. 合穴은 合水穴로서 腎臟과 유사한데 腎藏精, 腎主水하는 機能을 하므로 水液을 거르는 機能이 실조되면 津液이 大小便을 따라 排出되고 精을 貯藏하는 生理機能이 제 역할을 못하여 正氣가 부족해지고 命門火 作用이 실조되어 厥逆이 생긴다.

이를 볼 때 風은 井穴, 熱은 滎穴, 濕. 寒은 輸穴, 燥는 經穴, 寒은 合穴이라는 內容으로 전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素問 . 水熱穴論篇』에는 六淫으로 인한 治病에 "兪穴을 취해 陰邪를 除去하고 合穴을 取해서 陽邪를 除去, 井穴을 取해서 陰

84)『難經 六十五難篇』"所出爲井... 所入爲合"

逆을 내리고 滎穴을 取해서 陽氣를 충실하게 한다[85]"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風은 井穴, 熱은 滎穴, 濕·寒은 輸穴, 燥는 經穴, 寒은 合穴이라는 내용으로 전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을 綜合하여 五輸穴의 主治를 分析해 보면 五運과 六氣의 特性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臨床에서는 太陰氣運異常 症候가 있을 경우 太陰經의 調濕하는 機能이 실조되면, 手太陰肺經은 늘 적당한 濕氣를 유지해야하는 臟腑이므로 上焦의 濕調節과 關聯한 異常症候가 잘 드러난다.

그 結果 手太陰의 異常은 얼굴 浮腫과 같이 上焦를 주로 侵犯하며 足太陰의 異常證候는 팔다리 浮腫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濕邪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할 때 輸穴을 取해서 主治 할 수 있다.

5. 關係理論에 따른 配經 과 配穴

가. 開闔樞 理論에 따른 相通經絡의 活用

開闔樞理論은『素問』에서 根據하여 發展된 理論이다.『素問 . 陰陽離合論篇』에서 "三陽이 分離되고 結合하는 데에는 太陽은 겉을 열어주고 陽明은 안에서 닫아주고 少陽은 문의 지도리가 된다 ... 三陰이 分離되고 結合하는데는 太陰이 열어주고 厥陰이 닫아주고 少陰이 門의 지도리가 된다"[86]고 하여 開闔樞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開는 열어서 發散하고 闔은 닫아서 간직하며 樞는 活動하게 하여 開闔의 調節의 機能을 한다. 太陽과 太陰은 寒濕을 발산하고, 陽明과 厥陰은 陽氣를 안으로 거둬들이고 風을 다스려 搖動치지 않게 하며, 少陽은 君火를 돕고, 少陰은 陽氣를 안정시키고 神氣를 調節하여 人體의 지도리 역할을 한다.

『內經』의 開闔樞理論을 發展시킨 張仲景은『傷寒論』에서 六經을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삼아서 病의 生理, 病理, 轉變에 대해 臟腑 經絡이 일정한 法則을 가지고 있다

85)『素問. 水熱穴論篇』"取兪以寫陰邪 取合以虛陽寫 取井以下陰逆 取滎以實陽氣"
86)『素問 陰陽離合論篇』"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는 論理를 전개했다. 傷寒學說에서 六經症候는 원래 經絡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六經의 病證은 六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太陽經證은 人體의 後面과 관련있으므로 症狀도 後面部에 드러나는데 太陽經絡은 목, 머리 허리 등에 증상이 나타나고 陽明經證은 全面의 얼굴부터 복부 다리까지 증상이 나타나며 少陽經은 側面部 증상을 동반한다. 陰經의 경우는 裏證에 가까워서 증상이 陽經에 비해 經絡으로 현저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三陰經의 循環部位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少陰病症의 口渴, 가슴이 답답한 症狀, 咽痛 등과 太陰病證의 腹滿[87]등은 經絡의 流注와 무관하지 않다.

『傷寒論』의 意義는『素問』의 理論을 바탕으로 人體를 生理, 病理에 기초해서 일정한 法則을 찾아 六經病證을 분류했다는데 있다. 六經病症은 모두 臟腑 經絡이 일정한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辨證이 편리하여 陰陽調節이라는 鍼灸治療의 原理에 符合되게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表에 해당하는 太陽과 太陰, 裏에 해당하는 厥陰과 陽明, 中에 해당하는 少陽과 少陰의 臟腑 經絡이 일정한 法則아래 發病, 傳病되므로,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 病邪의 進行過程을 診斷, 豫測할 수 있다는 점에서 臨床의 중요한 理論的 活用方法이 된다.

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經脈 또는 臟腑에 단독으로도 發病하지만 대부분 人體相互間 交流에 의해 傳變되는데 그 경우 病邪가 傳變되는 過程을 理解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傷寒論』의 임상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

肺의 病은 本臟 本經에 發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經絡 臟腑의 病症이 相互傳變되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肺와 相通臟腑에 속하는 膀胱의 病證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肺가 原因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膀胱이 原因이 되어 肺로 傳變되어도 나타나는 現象이다. 예를 들어 小便을 자주 보면서 量이 적고, 寒冷하고, 숨쉬기가 充分하지 않고, 小便色이 變하는 등의 症狀은 膀胱과 관련한 症狀이지만 肺의 所生

87)江蘇省中醫大學 傷寒研究室 編. 民族醫學研究所 古典研究室 譯.「傷寒論 釋義」여강출판사 2001 p404

病에서 邪氣가 왕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어서 六經의 病理現象은 開闔樞理論에서 밝히고 있는 相通臟腑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相通臟腑學說은『素問 . 通評虛實論篇』에서 언급한 "五臟이 平和롭지 못한 것은 六腑가 막혀서 일어난 疾病이다"[88]라고 한데서 근거한다. 相通臟腑關係는『內經』을 근거로『醫學入門』[89]에서 처음으로 밝혔으며『東醫寶鑑 . 內景 五臟六腑篇』에도『醫學入門』을 인용하여 臟腑相關[90]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東醫寶鑑』의 인용문에는 胃와 心包의 關係에 대한 內容이 빠져 있다.『醫學入門』에서 "胃與命門相通津液 胃虛宜大補右腎"라고 하였으므로 命門을 心包와 同一하게 보는 견해에 대한 前提가 있어야 하기에 論議에서 빠진 것으로 여겨진다.

相通臟腑理論에서 六經의 表에 해당하는 太陰은 太陽과 開로서 通하고 手太陰은 足太陽과 陰陽으로 相通하며, 中에 해당하는 少陰은 少陽과 樞로서 通하고 手少陰은 足少陽과 相通하며, 裏에는 陽明과 厥陰이 闔으로서 通하고 手陽明은 足厥陰과 相通하여 이어져 있다. 이렇듯 開闔樞가 相通하여 다시 上下陰陽으로 配合되어 十二經의 開闔樞 相通關係가 이루어진다.

肝病患者가 大腸이 막히면 昏睡狀態에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이 체하는 것과, 心臟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입이 쓰거나 한숨을 쉬는 것은 모두 相通臟腑으로 인한 것이다.

鍼灸 治療의 基本原理는 陰陽調節에 있는데 相通臟腑學說에서는 모든 관계가 陰陽經이 手足으로 이어져 氣機의 昇降出入, 水昇火降이 이루어진다. 臨床에 있어서 陰,陽經의 取穴은 현재 病症이 머물고 있는 經脈을 中心으로 病의 轉變과 그것이 豫

---

88)『素問 . 通評虛實論篇』"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

89)『醫學入門. 五臟』"五臟穿鑿論 曰 心與膽 相通 心病怔忡 宜溫膽 爲主 膽病戰慄癲狂 宜補心 爲主 肝與大腸 相通 肝病 宜疎通大腸 大腸病 宜平肝經 爲主 脾與小腸 相通 脾病 宣瀉小腸火 小腸病 宜潤脾土 爲主 肺與膀胱 相通 肺病 宜淸利膀胱水 後用分利淸濁 膀胱病 宜淸肺氣 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 相通 腎病 宜調和三焦 三焦病 宜補腎 爲主 胃與命門 相通 津液 胃虛 宜大補右腎 此 合一之妙也"

90)『東醫寶鑑 . 內景 . 五臟六腑篇』"心與膽相通 心病怔忡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癲狂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 肝病宜疎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 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淸利膀胱水 膀胱病宜淸肺氣爲主 腎與三焦相通 腎病宜調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此合一之妙也"

想되는 經絡, 혹은 太過. 不及을 보아서 選經해야 하는데 相通臟腑를 中心으로 取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水昇火降의 原則이 陰陽經脈의 配合에 적용되어 治療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經絡은 循環體系이며 陰陽은 이름이 다를 뿐 뿌리가 하나이며 일순간도 쉬지 않으므로 經絡의 陰陽을 통해 臟과 腑의 陰陽을 조절할 수가 있다.

主症을 잡아서 效果的으로 病症을 제거하기 위한 治療原則에 관해 東洋醫學에서 "君臣佐使論"이 있다. 水昇火降이라는 人體의 이상적 均衡狀態는 陰陽經絡間의 조화로운 氣의 循環에 있다고 볼 때 開闔樞理論에서 表와 裏, 中의 關係를 理解하고 臨床에 陰經絡, 陽經絡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治療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아래 표는 開闔樞理論에 따라 六經의 相通臟腑關係를 표시한 것인데 화살표방향은 相通臟腑를 나타내며 이를 六經에 적용하여 取穴한다.

< 表 8 > 開闔樞理論에 따른 相通臟腑

	表	中	裏
六經	(太陽) 手太陽 足太陽 ↖ ↗ ↙ ↘ (太陰) 手太陰 足太陰	(少陽) 手少陽 足少陽 ↖ ↗ ↙ ↘ (少陰) 手少陰 足少陰	(陽明) 手陽明 足陽明 ↖ ↗ ↙ ↘ (厥陰) 手厥陰 足厥陰

手太陰經에 病邪가 머물고 있을 경우에 手太陰經絡의 穴을 取穴하는 것은 現在의 病症을 除去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人體는 有機體로서 病邪의 移動에 따라 轉移될 臟腑, 經絡을 살펴서 豫防 治療하는 것이 東洋醫學의 원래 目的이므로 위의 表에서처럼 相互 관련이 깊은 經絡을 取穴함으로써 治療의 效果를 높임은 물론 앞으로 轉移 될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각 經의 病證의 特徵을 理解하면 어디로 進行될지를 豫想할 수 있으므로 取穴은

水昇火降의 原則에 따라서 陰陽經絡을 配經하고 病邪의 特徵에 따라서 穴자리를 五輸穴, 五行穴로 配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심한 사람이 惡寒症狀을 呼訴하면 手太陰肺經에 邪氣가 머물러 있는 太陰異常이므로 肺經絡을 取穴하는 것은 現在症狀 解消를 위해 당연하며, 肺兪穴과 肺經의 尺澤穴을 取穴하여 肺를 치료한다. 그런데 惡寒發熱을 同伴하고 있으면 相通經絡인 太陽經絡을 추가하고 寒熱往來症狀이 있다면 少陽經을 추가하여 取穴하면 病邪를 속히 물러나게 할 수가 있다.

나. 天干相合關係 經絡의 活用

相合이란 五行끼리 서로 結合함을 말하는데 天干이나 地支의 모든 五行의 變化作用은 人體變化에도 동일하다. 合한다는 것은 拮抗作用의 의미로써, 合으로써 均衡을 잡아주는 關係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天干에는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열 개가 있는데 陽干(甲, 丙, 戊, 庚, 壬)이 陰干(乙, 丁, 己, 辛, 癸)과 結合하는 것을 天干의 相合 또는 天干合이라 한다. 서로의 氣運을 相殺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하여 相合하므로 甲은 己와 합하고 丙은 辛과 합하며 戊는 癸와 合한다. 또한 庚은 乙과 壬은 丁과 合하게 된다.

陽干은 發散運動을 하고 陰干은 收斂運動을 하는데 陰陽의 發散, 收斂運動의 力量은 上昇하는 힘과 下降하는 힘의 力量이 同一하게 作用을 하여 陰陽의 合을 이룬다.[91] 이는 '水火가 한 몸, 木金이 한 몸'이라는 五行의 原理가 自然現象으로부터 傳來되었음을 알 수 있는 部分이기도 하다.(아래 表 9 참고)

東洋醫學에서는 傳來로 陰陽과 五行을 結付시켜 診斷과 傳病의 基準을 삼고 있는데 天干合을 經絡에 適用시켜보면 甲(膽), 己(脾)가 合이 되고, 乙(肝), 庚(大腸)이 合, 丙(小腸), 辛(肺)이 合, 丁(心臟),壬(膀胱)이 合, 戊(胃腸), 癸(腎臟)이 合이되어 陰陽經絡의 相合運動을 하게 된다.

---

91) 박청화, 春夏秋冬 신사주학. 청화학술원 p246

< 表 9 >　　天干相合

+5 ↗　↘
+4 ↗ 戊　　己 ↘-1
+3 ↗ 丁　　庚 ↘-2
+2 ↗ 丙　　辛 ↘-3
+1 ↗ 乙　　壬 ↘-4
↗ 甲　　癸 ↘-5

지나치게 걱정 근심이 많아서 脾臟이 邪氣를 받게 되어 생기는 不眠의 경우 脾臟의 原穴인 太白(土土穴)과 膽經의 臨泣(木木穴)을 함께 써주면 效果가 좋은 것도 脾臟이 膽과 相合하는 原理에 의한 것이다. 臟腑 經絡의 虛實이 분명한 경우에 合이 되는 陰陽經絡을 다스리면 虛實을 相殺시키는 效果가 있다.

다. 表裏關係 經絡의 活用

太陰과 陽明은 表裏關係, 少陽과 厥陰은 表裏, 少陰과 太陽은 表裏關係의 經脈에 속한다. 肺經으로써 大腸을 治療하고 大腸으로써 肺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은 表裏의 原理 때문이다. 예를 들어 痔疾의 名穴인 孔最穴이 肺經에 속한 것도 肺와 大腸이 陰陽表裏關係이기 때문이다.

第三章　結論

본 論文은 經絡에 나타나는 反應과 經絡氣化作用의 原理를 살펴서 臨床에 活用하고자함이 目的이었다. 經絡氣化의 理論的 背景인 五運六氣는 東洋醫學理論의 重要한 根幹이 되는데 五運六氣가 人體와 相合하는 原理를 살펴보는 것은 經絡을 活用하여 인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根本을 理解하는 것이 된다.

文獻에 기록된 歷代 醫家들의 說을 參考하여 五運六氣와 經絡氣化間의 相關關係를 살펴본 결과 意味있는 結果들을 導出할 수 있었는데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東洋醫學의 바탕은 大自然이며 時間과 空間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人體는 大自然에 相應하여 疏通하며 變化에 適應하므로 '天人相應'의 人體觀이 東洋醫學의 核心的 思想이다.

2. 經絡氣化는 該當部位, 陰陽五行과 五運六氣의 特性이 結合되어 水昇火降原理로 發顯되는데 特定部位로 흐르는 臟腑의 屬性과 六經의 特性이 反映된 결과이다.

3. 經絡氣化의 水昇火降 發顯은 六經의 表裏인 太陰과 陽明, 少陰과 太陽, 厥陰과 少陽의 拮抗作用의 結果이다.

4. 經脈의 五輸穴에서 五運 六氣的 特性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江蘇省中醫大學 傷寒研究室 編. 民族醫學研究所 古典研究室 譯. 傷寒論 釋義 여강출판사 초판 200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 靈樞. 圖書出版 醫聖堂. 200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부설 전통의학연구소 7판 2004

唐宗海 著. 金達鎬 安圭錫 共譯. 醫易通設. 圖書出版 醫聖堂. 2002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 注釋. 경희대학교출판부. 1998

박청화. 春夏秋冬 신사주학. 청화학술원 2005년 초판

신봉철 정하주 엮음. 사암침법 (온배움터 강론집) 2007

陸瘦燕. 陸瘦燕鍼灸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李炳國 飜譯. 국역 鍼灸大成. 原著 楊繼洲. 침코리아 초판1쇄 2005

李梴. 醫學入門. 高麗醫學. 2쇄 2006

崔昇勳. 難經入門. 法仁文化社. 초판2쇄 2004

崔亨柱 解譯. 黃帝內經 素問. 자유문고 2004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개정판 10쇄 2005

洪元植. 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研究會. 초판5쇄 2004

허임저. 강상숙 원치만 이은화 역. 鍼灸經驗方. 사단법인허임기념사업회 5판 2011

허준 저.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東醫寶鑑 內景篇 A형. (주)휴머니스트 2008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대체의학과	학 번	2011863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정인순 한문 :鄭仁順 영문 : Jeong In Soon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84번길 46번지				
연락처	E-MAIL : haelife1212@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경락기화와 오운육기의 적용에 관한 연구 영어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System & Qi Transformation, and the Five Circuits & Six Qi'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

2013년 2 월 일

저작자: 정인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